

소학생

8월치

당선작문동요특집*



조선 아동 문화 협회 발행*

49호

아홉 상 타기 작문 동요에 뽑힌 분들



작문 우수
김 애리수
경주 시교로 6년



작문 특등
김 송길
보령 남포로 4년



동요 특등
이 종욱
서원 부속로 3년



동요 우수
서 승근
대구 칠성로 4년



작문 우수
이 연자
경주 시교로 4년



동요 우수
한 흥수
경남 마포로 5년



동요 우수
최 인숙
서원 부속로 3년



동요 우수
윤 은열
서원 마포로 3년



동요 우수
강 상협
대구 칠성로 4년



작문 일선
김 창조
대구 시교로 4년



동요 일선
이 종민
경남 부산면로 1년



작문 일선
변 지호
대구 칠성로 2년



동요 일선
박 결호
계성 현정로 3년



작문 일선
김 양규
안산 중앙로 3년

차. 례

협상 작문 중요
당선 발표

작 문 (1-10)

나리 달전장(김 중집)·내 이름
(김 석백수)·서울 전 동우회개
(이 인자)·불 조실(김 장조)·
괴자(김 지호)·우리가개(정 경
희)·내 달 자전개(김 양환)·유
명(김 기원)·예화 요러(박 경
순)

중 요 (10-18)

나뭇배(이 광숙) · 나뭇길(서
상하)·산골짜기(김 영수)·외
로비 비행(김 인숙)·농장(홍 근
용)·세아원(김 상철)·내편경
(이 중민)·세리(박 지호)·지
내 노래(서 상하)·같이 걸터면
(최 권숙)·미환일(노 덕민)·아
가르러(이 중민)·소(박 윤지)·
개구리(김 영수)

광고 나시 (13-18)

이 회승·김 지승·홍 석영
이 원수·전정주 *

종합고 나시 (20-31)

☆이편이 할을 역사 비영환(20)
☆과학과 과학철학 김동민(27)
☆원근 고한..... 김지영(28)
☆조선 공주.....(29)

세부집과 편지..... 홍중민(24)
인생 초기 장미..... 문제민(25)
후산보마리 회사..... 최영수(26)

소설·이순신 정관 박미현(22)
소설·명절 구구..... 박 원(23)
소설·국바람의리림 유국상(24)
동화·공물원 구경 유소선(25)

일문선 (1) 그림 속담 (20)
색소식 (25) 세로편표가 (27)
차차차 (28) 비천신상 (29)
○이복자 삼라기 발표 ... (30)
○소학생을 위한 음악회 ... (31)
희희작사 ☆ 필필작상 ... (32)
크리스마스 물기.....(33)
구락부 ☆ 민물고 나시.....(34)

그림 그리신 분

김 의환·김 현승·김 경집
조 병덕·김 기광·최 수집
전장 그림.....김 현승

소학생

★ 8 월 차 ★



김 경집 그림

아현상타기작문 동요당선발표



≡≡≡ 작 문 ≡≡≡

특등 나의 발견장

충남 보령 남포 국민 학교 8년 김 종 길

"오빠, 요전에 심은 콩 씨
이 나왔어"

나는 이 말이 끝나기 두 건
에 말으로 뛰어 갔습니다.

가 보니 어제 저녁 비때 속
속해진 땅에 세와탄 콩 씨이
여기 저기 나왔습니다. 이
곳저곳 큰 흙 덩어리가 떠
돌려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그마한 콩 씨가 아무데 비
가 와서 속속한 땅이라 하거
라도 이처럼 커다란 흙 덩어
리를 옮긴 채들로 당 위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찰 놀라운 일이다. 흙 덩
어리를 떠 들고 보나, 다른
콩보다 빛이 노랗습니다. 줄
술이는 기쁜 듯이 하나, 둘,
콩 씨를 세고 있었습니다.

나도 기쁘고 신기한 마음이
가득 왔으나 한편 마음 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요전에
아버지께서 딱딱한 콩 씨를
뿌리셨는데, 그 속에서 이와
같이 연하고 예쁜 씨이 어찌
생길까? 이상한 일이다. 나
는 혼자 중얼거리며 팔을 나

왔습니다. 벌은 내 온 몸을
뒤고 하늘에는 흰 구름이 한
뭉치 양 대가 물더가 꽃이
흔들려 잡니다.

오날 저녁 밥을 먹을 때
아버지께서 어루어 보았습니
다. "아버지, 저 딱딱한 콩
에서 어찌 저러 예쁜 씨이
나와요?" "아니, 무이 그저

땅에 물으면 나오
는 거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해
는 내 마음이 시
원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나는
밥상을 치운 뒤에,
콩 씨를 갖다 조
개 보았습니다.
속해는 아무 것도
없고, 콩에 꼬리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아아,
아마 요것이 씨이
나오리라. 나는 현
유리 접시 모래를
넣고 콩 씨를 세
게 물고 물을 주
고 관찰해 보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콩 씨가 많이
키웠습니다. 사흘 되는 날
많이 컸습니다. 과연 콩 그
리가 점점 자라납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콩 꼬리
가 자라서 콩이 커지요?"
"아하! 콩 꼬리? 콩 줄이
야?" 집안 식구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 이튿날이였
습니다. 이상하게도 콩 씨는
씨이 변하고 모두 땅 문을
향했습니다. 부엌엔 콩이 즐



주요였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어머니께 여쭙어 보았더니, "정말이 닿는 까닭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그 집을 몇몇씩 내 놓았습니
다. 저 때 때 보니 과연 원연히
정말이 닿아서서, 말의
분과 같이 새파랗고 큰돈해
되었습니다.

마침 5월 15일 배제 시
한데 것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너희들 중
에서 과학 이야기 할 사람이
있거든 나와 해 보아라." 하
셨습니다. 나는 요전에 공
부 때 할 두 가지 발견을 발
표할 수 있는 기쁨에, "올
려!" 하는 소리가 나도 모
르시 나왔습니다. 동무들은
내 이 사람 저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한 사람도 나가져

않았습니다. 이 때 내가 나
가서 일하게 이 두 가지 발
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동무
들은 다 나를 쳐다보고 또
쳐다봅니다. 발표가 끝난 뒤
선생님께서, "중질군은 참 좋
은 발견을 했다. 유우군은
농금 달지 것을 보고 말
유 인력을 발견했으나, 너희
들도 무슨 작은 일이라도 의
심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
면 훌륭히 발견할 수 있다."
하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나
는 선생님의 말씀에 더욱 기
운을 얻어 계속해서 연구하
리라 결심하고 집에 돌아 오
자, 곧 학습장을 한 권 내서
"나의 발견장"이라 적으르
쓰고, 처음 장개다 오늘 발
표한 것을 자세히 적었습
니다.

고 성과 하시지요?

애리수, 어떻습니까? 참
말 좋은 이름입니다. 어머
분, 불러 보세요. 크게 부르
기도 좋고, 가만히 살짝 부
르기도 좋고, 참 이름치고는
아주 멋쟁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분! 난 좀
섬섬할 일이 있습니다. 이름
자가 셋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 있어요. "애리수"니, "영
수"니 하는데 이런 것은 좋
은 것이고, 심하면 "애리시"
"엘리" 합니다. 참 기가 막
해요.

그것 무슨가요? 우리 오
라 동우는 중학교에서 요새
서양 달찌나 떠웠는지, 나만
보면 "엘스, 킴" "엘스, 킴"
하여 불러줍니다. 이름이 서
양 사람 같다고요. 그러나
어머니 분, 내 얼굴은 절대로
서양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둥글둥글한 예쁜 얼굴이라고
모두들 그러는대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요새
내 우리 집 셋형제 영수제가

우름 1 내 이름

장곡 성주 석교 국립 학교 6년 김 애리수

어머니 분, 내 이름을 소개
해 볼까요? 애리수, 이것이
내 이름입니다. 보통 사람은
내 이름이 두 갈래 나는 욕
심이 많아서 한 자 더 많습
니다. 무엇하든지 남보다 더
잘 해 보자는 욕심, 어떤 것
은 강력도 견줄것지요?

욕심 바와는 반대로 의 자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이성적인 많은 것이 좋지 지
는 것이 좋을 이는 없을 것
입니다. 형제도 많아야 좋고
언덕속해 공부도 많아야 좋
지. 그러니까 내 이름도 한

자나 두 자 이름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참말 그렇다



이사를 왔는데, 그 날 저녁
 때 형수 어머니는 나를 보고
 "네 이름이 뭐지?" 하고 물
 기에, "메리수예요" 하고 대
 답하니,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에, 너의 아
 버지 서양 사람이냐?" 하고
 물읍니다. 세상에 참 건방
 진 사람도 많아요.

우리 학교 김 메리수 선생
 님은 나를 보시면, "네 이름에
 는 혹이 달렸어, 혹..." 하
 십니다. 내 이름에서 에 자를
 떼면 김 선생님 이름이 되는

데, 그 "에" 자를 혹이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 이
 름에는 머리가 없는데요..."
 하면 "아하하하" 웃으시
 면서, "아, 참 그렇던가?" 하
 십니다.

또 장난을 좋아하시는 박
 선생님은 어떤 때는 "메리
수" 어떤 때는 "메티수" "아
름이 멋장인데!" 하시며 빙
 글빙글 웃으십니다. 그런 때
 마다 나는 부끄러워서 얼른
 달아 나지만, 속으로는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모두 걱정을 하는데,
 "아, 이런 때 여옥이가 있
 더라면....." 하니, 모
 "글세, 참," 하였었다.
 는 그 때 내 생각이 되
 다. 그런데 또 지난 주 일
 일 "어린이 날"에는 내
 회를 하였었다 그 때
 더 반에는 학급 대항 메리
수 에 나가서 꼭 이길만 할
 가 없어서, "아 여옥이가
서울로 갔나?" 하며, 또
 시 너를 생각했었다. 메리
수 에서는 분하게도 일등을
 앗기었다. "아, 여옥이만
서울까지 있었더라면..." 하며
 우리들은 내가 서울로 간
 을 슬퍼했었다.

우등 2 서울로 간 동무에게

충북 청주 석교 국민 학교 4년 이 연 자

여옥아, 내가 "서울로 전학
 해 간 것이 잊그치게 잘너니
 벌써 1년 반이나 되었구나.
 너, 그 동안 잘 있었니? 우
 리들도 모두 다 아무 일 없
 이 잘 있었다.

그런데 여
옥아, 난 꼭
 내가 먼저 편
 지해 줄 줄만
 알고 기다렸
 없는데, 편지
 가 아니 와서
 할 수 없이 내
 가 먼저 한다.

에, 여옥아,
 내가 나간 후
 때 우리 반은
 좀 쓸쓸해졌었다. 내가 우리
 반 급장이었을 때는, 우리
 반이 무엇이든지 참 잘 한다
 고 선생님들께 왜 칭찬도 많

이 받지 않았었니?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단다.
 지나 간 겨울 방학, 그 날이
 아마 1월 8일이었지... 우
 리 학교에서는 극장개서 크



게 학예회를 하였는데, 우리
 들도 "천도 복숭아"라는 아
 주 재미나는 극을 했었다.
 그 때 유희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있었더라면 얼마
 좋았겠니?

여옥아, 나는 내가 학예
 칩 앞을 지날 때마다, 너
 고 같이 놀던 그 때 생각이
 나서 난 내가 되 보고 싶어

교실에 들어가
 면 지금도, "메리
 수, 경매!"
 하는, 내 목소
 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

참, 여옥아,
 너는 그 학교에
 가셔도 학예회
 이라지?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여옥이는 어디
 먼 그렇게 좋
 할까?" 하며, 동무들과 함
 께 여간 기뻐하지 않았단다.

에, 여옥아, 언제 한 번
 서울 구경 잘 다니니. 너,

“...지라고 홍보지 말고, 서
...정 좀 잘 시켜다오.
...지도 쓸 말은 많지만 오
...받은 줄여서 고만 쓴다.”
... 재미있는 서울 얘기 좀

알려 줘야 된다.
그럼 부더부더 잘 있거라.
5월 9일
이 연자
이 여육에게

입 선 1 부더부더 불 조심

충북 청주 석교 국민 학교 6년 김 창 조



서 휘둘렀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어 나왔다. 취 애회 취 학년도 내 뒤를 따랐다. 우리 셋은 있는 힘을 다 하여 막 달렸다. 그러나 달려 가도 달려 가도 길은 끝이 없었다. 그

어느 날, 우리 선생님이 걸은하시었다. 나는 하루 종일 작업을 하면서도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찌 말할하던지 선생님 댁이 이 우 부내에만 있다면 뛰어 가 보고 싶었지만, 선생님 댁은 십 오리나 떨어져 있는 손에 있어서 드릴 수도 없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 진거를 타고 여태까지 2년 동안 걸은 한 번 안하신 우리 선생님. 나는 불안 중에 그 날 공부를 마쳤다.

오래 시간이었다. 누가 그랬는지 “우리 선생님 댁에서 불이 났단다.” 하는 바람에 우리 한 급은 금방 뒤풀이를 하였다. “불이 났대. 불!” 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

래도 또 달렸다. 얼마 후에 선생님 댁에 다 달은 우리는 우선 눈물부터 흘렸다. 다 타 버린 지붕에 시커멓게 남은 재, 무너진 울라디, 다 부서진 살림살이, 책상, 장농, 그릇, 경대. 그런 것이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깨어질 대로 깨어져, 마당에 쌓인 검은 재와 함께

이리저리 뭉클고 있다. 얼굴에 점명 실을 한 동네 사람들이, 다 타 버린 집을 사고 외골와글 떠돌고 있다. 그속에서 선생님은 낯 익은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 계시었다.

우리들은 선생님께 인사 여쭙 줄도 모르고 울고만 있었다. 그 때 선생님은 우리들을 보시고 잠깐 놀라시며 “이렇게 먼 데를 어떻게 왔니? 식구들의 부주의도 볼을 냈다. 그러나 걱정 마라. 오늘은 늦기도 하니 어둡기 전에 가거라.” 하시는 그 목소리는 역시 떨리는 목소리였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 듯 하였다.

사흘이 지난 후 선생님은 쓸쓸한 모양으로 나오셨다. 교실내 들어 오시자, 선생님은 “이 번에 불을 낸 것은 나의 큰 수지다. 나는 너희를 볼 낫이 없다. 이것을 기회도 너희들은 불 조심하여주기 바란다.” 하고 말씀하셨다.

불은 참 무서운 것이다. 나는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여쭙었다. “부더부더 불 조심 부더부더 불 조심합시다” 라고...

입 선 2 과 자

대구 원성 국민 학교 2년 변 지 호

젓 먹는 아기가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과자를 한 개 주니까, 젓 먹는 아기는 땀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와서 보고, 나도

달라고 울었습니다. 굉장한 울음 소리였지요. 그때 어머니가 동생에게도 과자를 주니까, 동생도 땀을 흘렸습니다.

입선 3 우리 가게

대전 선동 국민 학교 3년 정 정희

선동 동 최수코라는 마더
 일해 있는, 조그만 잡화 상
 집이 우리 가게를 사다.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과자
 등속이 제일 잘 팔립니다.
 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
 이, "오시는 손님께 친절히
 대접할 뿐 아니라, 물건을
 정하게 하여야 한다." 고 하
 십니다. 아침 여섯 시부터
 밤 열 한 시까지 손님이 끊
 이지 않는데, 손님 증에는
 우스운 소리 잘 하는 손님도
 있고, 슬이 취하여 주장을
 하는 손님, 물건을 훔치는
 손님, 값을 헐하게 해 달라

는 손님, 여러 손님이 오시
 어 매일 분잡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어느 손님에
 게나 용손히 하고, 또 친절
 히 해 드리며, 될 수 있는
 대로 값을 헐하게 하니까,
 나쁜 때보다 손님이 많이 옵
 니다. "이이만 많이 보려고
 하면 안된다. 외에도 좋은
 물건을 헐하게 해서 손님의
 편편을 봐 드려야 한다" 고,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십
 니다. 우리 식구는 모두 마
 음을 힘해서 재밌게 살아
 잡니다.



입선 4 세 발 자전거

군산 중앙 국민 학교 3년 김 양균

나의 동생 남선이는 손까
 락을 입혀 끌고 서서, 기열
 이가 세 발 자전거를 타는
 것을 우뚝커니 보고 있었습
 니다. 하기는 아까부터 벌써
 세 발이나 저도 좀 타 보자
 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기열

이는 한 번도 세워 주는 법
 없었습니다. 기열이가 세 발
 자전거를 타고서 "저명찌렁찌
 령 비켜라, 비켜!"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치고 달아날
 때, 남선이는 옆으로 달려들
 어서 "예, 기열아, 나를 타

!" 하고, 또 졸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열이는 손을
 구름뜨고, "이 자식이 재
 때, 치어 죽을라구..." 하고
 손으로 밀어 버리고는 달
 아갑니다. 그런데도 남선
 이는 그 세 발 자전거를
 시도 떠나질 못하고, 그
 아니라 시키지도 않질면,
 가랏아 와서 뒤로 밀어
 고, 혹은 손잡이를 잡고
 여도 주고 합니다. 마침
 할망정, 자전거를 빌려판
 아도 마음이 되 기때서 그렇
 니다. 그러나 한 번은 남선
 이가, 기열이와 세 발 자
 천거를 한꺼번에 모두 보
 느렸습니다. 기열이는 만
 골을 내 자지고 일어나서
 사정 없이 남선이의 상
 뒀습니다. "이 자식이, 너
 더 끌었어?" "응아아!" 하
 고, 남선이는 두 손으로
 을 덮고는 울지 않을 수 없
 었습니다. 한편 남선이가
 가서 "예, 슬지 마라. 세 발
 천거 타게 해 주마." 하고
 꺾속으로 달래는 바람에,
 재서야 울음을 그쳤습니다.
 나는 동네로 돌아 다니며,
 조그만 아이들을 설아붙이
 모아 왔습니다. 그러고
 운동을 한다고 장가들을
 며 명석거렸습니다. 기열
 들을 안을 세 바퀴 돌아
 는 경주였습니다. 이가
 일동하는 사람은, 그 상으로
 신문지 오린 돈짓조각 받
 식 주는 것이었습니다. 남선
 아이들은 대 운동이라고

사람이 나서 발음할
 을 심니까. 기열이
 가 한 편씩 서서 이
 것을 가만히 보고
 있노니까, 서로 실
 이 나뉘는 혼자 꼭
 전거할 하는 것보다
 는, 여러 공구와 합
 금, 세 손톱이 꼭
 하모 있어서, 나를
 보며 "나부 해, 등
 용?" 하고 물었다



어머, 그래서 나는 "정리,
 이자식아, 너 자질개 혼자만
 앉지 " 하니, "그럼 너 자
 질개 가서 손에 나무 들이
 하..." 이렇게 하고 나서는,
기열이로 한 걸 뛰게 뛰었습
 니까.

그런데 기열이는 블레드
 차도 첫째라고 좋았으리 한
 상 주고, 세째도 차도 또 첫

째라고 한 상 주고 하였습니다.
 마. 그러니까, 기열이는 이
 마에 밤에 호르는 것도 모르고,
 자꾸만 경수를 하여고
 뛰었습니다. 이런 공안에 남선
 이는 그 세 팔 자질개를 아
 고서, 리도 "제정거림 제정
 제정 비켜, 비켜!" 하며,
 들뜬 얼굴 연발 돌아 다니었
 습니까.

원천 5 특 립

저술 장편 소설 작고 5년 김 기 현

복순이는 원천 줄이고 경
순이는 여섯 살이까, 이 두
 아이들은 우리 집 옆 골목에
 서 나웃하여 사는데, 언젠
 지 잠이 들고 있는 것을 본
 다. 한 살 돌리는 사적이란
 기고, 잠고 있을 생각이 대수
 잘 낫았다. 동관동관하고 손
 주 눈, 살이 두들길 없 불,
 만났 버러, 물에 사람들이
 상장이 잠라고 말할까.

"와우 어제 일이라, 내가
 개군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
 었더니 그 일찍이 들이 놀고

있다. 나는 무엇을 하나
 모려는 생각으
 도, 대문 뒤에
 숨어서 가만하
 노는 꼴을 엿보
 았다. 물론 아무
 정신 없이 골
 장난을 하더니,
경순이가 먼저
 "애, 복순아,
 너 독립이 무엇
 인지 아니?"
 하고 묻으니,
복순이는 한참

생각하는 듯이 하여니, "물
 다, 무엇이냐니 그것? 양 파
 자 아니냐?" 하고 대답한다.
 나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다
 보 삼고 있으려니까, 경순이가
 "아니야, 어제 우리 집 마디
 호가 "일제 독립한다." 그러
 마라, 아버지 말씀에 그것이
 좋은 것이래... 너희 집 마디
 호는 어떤 말 알하냐?" 하
 니까, 복순이는 "우리 집 마
 디호는 그런 소리 않는다"
 하고 말하는데, 나는 또 한
 번 웃음로가 더할때 하였다.
 두 아이는 이야기해 정신 없
 다. "그것이 무엇일까?" 알
 고 싶다는 뜻이 복순이가 물
 으니까, 경순이는 가장 아는
 체하여, "무엇이야 독립이지
 ?... 좋은 것이니까..." 하
 며 이 편을 돌릴 처마른다.
 그때 나를 본 그 아이는 복
순이의 손을 잡고 무척하다.
 돈 뜻이 달아났다. "그럼서,
 독립은 좋은 것이지..." 나는
경순이 말을 좇아 장일거리
 며, 대문 밖으로 나섰까.



입선 6 예쁜 토끼

곡성 본산동 서 국민 학교 4년 박 경 순

우리 학교에는 "이빨지안" 이란 토끼 두 마리를 기릅니다.

눈이 구슬처럼 새빨강고, 귀가 쫄긋하고, 털이 하얀 토끼는, 활로도 예쁩니다.

나는 학교에서 토끼하고 놀기가 한 가지 재미입니다.

오늘도 토끼 집 옆으로 갔습니다. 진 귀를 잡고 내 놓으며 하니, 뒷발로 버리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귀를 잡고 쳐들었더니, 활활 떴이 손을 들어 버려서, 얼른 놓았습니다. 색 푸르머운 물뿌이를 다루는 기분은 어떻

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 수염을 잡으며 하니, 깜짝 놀



다시, 진 뒷발로 떠덕덕 뛰며 달아나다가, 저만큼 가서 보보히 앉아 꼬를 까닥까

닥 하면서 쳐다봅니다. 또 달려 가서 잡으려고 했더니, 또 빠져 달아납니다. 그 때 사내 당번들이 와서, "귀찮게 말이라!" "경순이는 날마다 토끼만 귀찮게 환한 말이야..." 하며, 모두 목을 구면서, 진 귀를 잡고 잡아 가 버립니다. 나는 하도 세워서 줄을 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토끼는 제 집 안에서 뛰다가 의 그들 사이로 주둥이를 내 놓고 말라고 하는 듯이 소름 땀덕덕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른 줄을 입에다 대어 주었습니다. 토끼는 소름소름 땀있게 먹고 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학교에 오는 길에 줄을 팔러다 토끼를 줍니다. (그림·정 현용)

동

특 등

나룻배

서울 사범 대학 부속 중앙 국민 학교 5년

이 종 육

나룻배가 강나루를 떠났습니다. 아기 업은 엷마 손님 한 분 태우고 제비들만 오고 가는 저녁 강 위를 소리 없이 둥실둥실 떠났습니다.

요

수양버들 푸른 가지 우거진 마을 저녁 연기 술술 솟는 강 건너 마을 저녁 밥이 늦었다고 근심하시는 엷마 손님 태우고서 떠났습니다.

노들 잠은 뱃사공의 검은 그림자 강물 위에 어릿어릿 어릴 때마다 나룻배는 흔들흔들 몸을 흔들며 슬적슬적 물결 타고 잘도 갑니다.



우 품 1

나뭇길

대구 칠성 국민 학교 4년

서상근

삼미탈 나뭇길은
꼬불꼬불 뚱니다.

솔잎 한 짐 집어 지고
바람바람 길어 오면

가시 얽힌 나뭇길은
점점 멀어집니다.



우 품 2

산골의 봄

충남 서산 명지 국민 학교 5년

한생수

하늘만 쳐다보는 이 산골에
어떻게 왔는지 봄이 왔어요.

새비들은 먼 남쪽 먼 나라에서
이 산골 찾아서 살러 왔어요.



우 품 3

희오리 바람

서울 사립 대원 부속 중앙 국민 학교 3년

최인숙

백골백골 바람이 맴을 돌리다.
아담에서 백골백골 맴을 돌리다.

바람이 백골백골 맴을 돌리면
떨어졌던 나뭇잎도 같이 돌리다.

맴을 돌면 바람이 달아났어요.
달을 넘어 나뭇잎도 같이 갔어요.



우물 4

봄 밭

서울 마포 공립 국민 학교 3년

윤은용

봄 밭에 아욱이
눈을 뜨고 나왔다.

봄 밭에 쑥갓이
흙을 밀고 나왔다.

봄 밭에 배추가
활개 치며 나왔다.



우물 5

새 아침

대구 칠성 국민 학교 4년

강상별

참새들이 짹짹
해가 돋는 아침이다.
별들은 하나 들쭉
사라지는 새 아침.

닭들이 꼬끼요오
해가 돋는 아침이다.
농부들이 괘이 들고
들로 가는 새 아침.



김현기

내 동생

경남 부산진 국민 학교 1년

이정민

동생 동생
내 동생.
동동 동동
내 동생.
꼬락 꼬락
내 동생.



입 선 2

재 비

계성 원정 곡진 학교 3년

학 권 5

재미야, 너 술 때 자꾸 재할 때
날과나 났는지 알아 주었니?
재미야, 너 술 때 바람 걸릴 때
내 짐이 이었는지 알아 주었니?



입 선 3

저 녀 노 태

양주 원정 곡진 학교 4년

서 삼 권

산 너머로 뱃님이
술이 비리면
우리 둘이 일어나 뱃터
내달리니마.



산 너머로 뱃님이
술이 비리면
우리 둘이 일어나 뱃터
내달리니마.



입 선 4

풀이 없다면

경기 원정 순매 곡진 학교 4년

지 권 6

사람은 나더부러 풀이 있치만
바람은 가코가코 풀이 없지요.
사람도 나더부러 풀이 없거든.
우리를 조상님도 지금 있겠지.



입 선 5

비 풀 앞

양주 원정 양주 곡진 학교 0년

노 권 11

비들게지 비들게지
언뜻가며 비들게지
우운 겨울 지났으니
습연 옷을 벗어마.

실미볼 실미볼,
 선뜻가게 실미볼
 복바탕 불어 오너
 푸른 댕기 드러라.

임선 6

아가 토끼

서울 광희 국민 학교 4년

이 동현

토끼 토끼 아가 토끼
 귀도 얹다 땀았네.

토끼 토끼 아가 토끼
 눈도 얹다 땀았네.

토끼 토끼 아가 토끼
 발도 얹다 땀았네.



임선 7

소

경기 주천 지방 국민 학교 5년

박준제

우머 짐 황소
 푸덕푸덕 갈밭 소
 날마다 논을 갈지요
 오늘날로 논을 갈지요.

우머 짐 황소
 푸덕푸덕 갈밭 소
 오늘날로 세력푸덕
 아버지와 논을 갈지요.



임선 8

개구리

강원 도영원 주천 국민 학교 4년

임영수

낮에도 개구리는
 풀 속에서 숨어요.
 무엇이 불한지
 한데 모여서
 쾅쾅 쾅쾅 숨어요.



그림 김 의환·김 진섭

별고나서

작문을 추리고서

“소학성” 편찬부

올해는 작년보다 기쁘게 있었따. 작년은 우리 말을 세손지 같이 세 못했는데도 “그동안 훌륭한” 작문들이 있었었다. 그 때로부터 바뀐 것을 지난 올해는 얼마나 훌륭한 작문들이 들어올까 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다.

또한 예상할 것처럼 글이 온 작문가와 작년보다는 비교할 수 있을만큼 훌륭하였다. 우리 글을 배우는 아이들까지, 글씨 쓰는 아이들까지, 맞춤법이까든지, 얼마나 공부할 것인가로 하였다 하는 것을 믿어 주고 있다.

그러나 작문은 이러한 것, 즉 글을 잘 배우는가, 글씨를 잘 썼는가, 맞춤법이 옳아는가, 하는 것만으로는 훌륭하다고는 부족하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작문은 예술이어야 한다. 문학이어야 한다.

힘을 잡으면 억지로 글은 지은 분이 많았다. 선생님이 내어 주신 제주에 맞추도록 억지로 꾸미면 것도 그렇거니와, 실본이나 라디오의 연설을 따라서 써온 문장을 연분이 되 많았다. 같은 제가 경작할 것은 온 것, 노닐 것

을 조금의 거짓 없이, 아플 날에 서지않게 해야 한다는 것은 김성남의 글 보았을 줄 안다. 그러므로 이를 엄격하게 숙제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이 그대로 나온 것이면, 길고 어수선한 글보다 짧은 글을 훨씬 감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문이 좋겠는가는 실제로 작문판을 읽고, 또 읽바라신 선생님들의 비평을

하오면 알 것이므로 이 말하지 않겠으나, 특별히 주의하여 볼 것은, 성주 학교 중년 학교 장이 우등이 추천, 입선 첫째에 한 편을 차지한 학교가 있다는 것과 “외자”와 같이 특별한 글이 입선되었다는 것, “우리 기계”와 같이 거의 장 자랑 것도 칭찬할 수 있주는 것이다.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이번에 입선되지 않았다고 일등한 작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배우는 마땅하는 수업을 할까든가 입선을 할까든가 하는 것이 이러한 힘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더욱 힘을 써 주시기 바란다. 내년에는 더 좋은 숙문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결과 속이 같아야

심재원 이 회 승

—작 문—

특히 나의 발견장

참으로 훌륭한 작문입니다. 대저 글이란 것은 겉으로만 현상하고 속이 비어지는 곳입니다. 형식(겉)과 내용(속)이 다 고르고 빈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은 그 점이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①첫째 이 글은 별로 세수 있는 습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평범한 것으로 이면서도 조음도 비성진 때가 없이 빈틈이 없이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미(條理)도 매우 갖추어놓았습니다. ②말에는 글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글속까지 나오는 사실도 천후 순서가 조음도 이것나는 점이 없이, 그러한 일은 그러한 순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차례를 따라 진행시켰습니다. 결국 지은 아이의 능력이 명석한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③세째 이 글 지은 아이는 필리를 탐구하려는 의욕(意欲)이 매우 강렬합니다. 즉 과학성(科學性)이

동요를 뽑고 나서

심사원 윤 석 중

서 윤복 선수가 세계 신 기록을 낸 것은 거지 권 노릇이 아니다. 아현봉 산 꼭대기 오막사리에 내려앉은 망정, 어머니도 아버지도 무산계실망정, 낙망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한번 밥을 먹은 것을 놀라운 참음성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담고 담은 피담의 일이다. 어찌 마마 손 잔이냐? 노릇 한 편을 잘 짓는다는 것도 끄적끄적 몇 팔 적어 본다고 해서 골 적는 것이 아니다. 짓고도 짓고, 꼬치고 꼬치고

치고, 오백오백 무고 자주 자주 지어 보아야 훌륭한 글과 노래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품히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남이 지어 주고, 더 심한 분은 남의 작품을 고대로 베껴 오면 분조차 있었음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심사원인 내 작품을 고대로 베껴 오면 것도 어찌이 있다.

이런 글이 온 풍요함을 보면 너무 딱딱한 것이 많았다. 색색한 것과 딱딱한 것은 다른 것이니 딱딱하다는 말은 풍요함이 못

게는 것을 가지고 갈까 하도만 갖춰 놓았기 때문에 글이 어떤 때면이 그렇고도 적혀하였다. 그리고 글살이 너무 많았다. 가슴이 번 으려 슬프고, 풀이면 언제든지 슬프고……그러나 반드시 그러면 것은 없다.

나는 어떤데 풀린 분보다도 번이진 분분하게 먹은 기록을 쓴다. 왜 그런고 하면 글이나 노래도 마마손 같은 것이어서 처음에는 취했어졌어라고 할까지 힘차게 빌려 갈상을 서는 이가 이기는 때문이다. 한번쯤 풀린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중부합니다. 보통 아이로는 저희 아버지가 일러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와 같은 실천을 해를 일부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진 군은 어른의 말씀도 반죽송지 못하여 제 스스로 시험해 보겠다는 엉뚱한 작상을 하였을니다. 위대한 발견은 의심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③ 네때 출진 군은 정직성 (積極性)이 매우 왕성합니다. 콩의 색 내는 일을 실험하여 보는 것이라든지, 학교 잇과 시간제 조급도 수습이 하지 않고, 전뫼 나 서서 '자신 있게 발표하는 것은 그 기상이 참으로

활발합니다. 결국 익세할 수 없는 전뫼 탐구욕 때문이겠지요.

④ 다섯때는 판찰력 (觀察力)이 매우 번밀(綿密)한 것입니다. 저극성이 있는 아이는 까딱하면 번밀대기가 쉬운 노릇인데, 출진 군은 동 색이 자라나는 것을 용취주모(用取周到)하게 관찰하였습니.

⑤ 여섯때로는 무슨 일을 할까지 아물리어서 시중일관(始終一貫)하는 전뫼성이 좋습니다. 전뫼하면 학교에서 발표한 것으로도 글을 막고 말 리는데, 집에 와서 발전장까지 지어 발표하는 것을 이만 나이의 아이로는 참으로 경탄할만한

일입니다.

이상해 발췌한 내용이 그 문면(文面)에 생생하고 활활하게 나타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로 전 뫼하고 발전하여 나아가면 출진 군은 글 짓는 솜씨로나 사립으로도 나 반드시 대성(大成)하여라는 것을 믿습니다.

후론 1 내 이 풀

"유모어"라고 지어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저 눈난함 습니다. 아마 글을 풀 알을 알라는 어른도 이만한 글한 편을 지 세기는 용이송지 않을 것입니다. 천재(天才)가 아니면 소학교 5년설으로도 이만한 능난을 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출진 군은

결론에 이어너가 하는 말이
다른지, 질 비수 선생님의
분담 받은 것은, 이 글 속
서 가장 빛나는 알맹이
들, 생각하기엔 따라이는
중경도가 지나치는 농성이라고
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재수를 돌 재어하는 듯한
자세가 '필요'라고 생각합
니까.

수봉 2 서둘러 간들
무에게

출중한 전지 사선이라, 학
교 생활을 중심으로한 신년
의 문장(文壇)을 세어있게
알리고, 앞으로의 부락까지
로 세어있게 말하여 주었
다. 허곡이가 말한 것
처럼 서남 때부터의 생각으로
공부해 나간 수경도 의 말, 그
리고 자연스럽게 표현되었
다. 자기 일개일만의 전지
가 아니라 한 분부 진리를
대표하여 보내는 글일 모양
으로 되어, 이 전지를 받은
허곡이는 이 책은 학교와
공부할을 생각하는 희포가
미국 전지라고 안아까지
것이다.

입선 1 부디부디 불조심

진박력(眞迫力) 있는 글이
다. 물 한 자리의 정경을 묘
사한 것이라든지, 선생님의
재고와 그 말들이 모두 잘
그려서였다. 사색간의 침의
가 숨어 흐르는 법이, 더욱
한다.

입선 2 과 자

과자 두어 개를 손질으로

한 어떤이의 전곡이 길어져
있다. 아마 반 지포 군도
있을 것이었겠지?

입선 3 우리 가게

가게를 통하여 물어나 오
이는 차회상(車會相)과 상업
오의 성업정력이 짧은 글 속
에 잘 나타나 있다.

입선 4 새 밭 자전거

어떤이들의 유의하는 세계
가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기영이를 언젠까지 첫째라고
유어해서 가치고, 일종의 순
제(循禮)를 세어, 새 밭 자
전거를 옮겼 하는 것은 이
글의 힘이라고 아니할 수 없
다. 그것이 아깝게도 이 글
을 입선으로 함의 불리지 못
하게 된 원인이야 할 것이
다.

입선 5 뚝 밭

죽멸에 대한 두 어떤이의
분담은 비수 세어있고 또
그림 뜻하다. 함강 때문
에 숨어서 엿듣는 재고라
든지, 나중에 저를 보고 경순
이가 부르러온 뜻이 나타나
러하는 장면이 아무때도 이
글의 여가 되지 않을 수 없
다. 경순이 말을 퍼뜩이
여 송얼거리며 나오는 것도
작자표지는 너무 숙성한 때
도라 할 것이다.

입선 6 예쁜 토끼

모피의 영풍을 자세히 관
찰하고 묘사한 것이 세어있
다. 모피를 품시 귀여하는
마음으로 잘 퍼뜩이 군 것도

어떤이였다.

— 동 요 —

수봉 나뭇배

시상(詩想)이라든지, 표현
(表現)의 농담함이라든지,
미관이 모은 품이라든지 노
숙한 이론의 솜씨 같다.

수봉 1 나뭇길

수경의 말이 새뜻한 노매
가 아니라 죽화 같은 담박한
노매다. 그 담박한 흥미 무
엇이 음적이고 있다.

수봉 2 산골의 물

하물만 세마리는 산골에
물이 오고, 세마리 오고, 일
마나 희한한 신 가, 얼마나
한가운 일인가

수봉 3 뽕오리바람

뽕오리바람이 눈 앞에
오는 희포의, 미음도 영글
한 글다.

수봉 4 뚝 밭

문은 이와 같이 악동(
惡動)하는 법이다. 힘의 질
기다.

수봉 5 새 아침

태음이 물이 일으킨 새 아
침은 참새새가 먼저 끌어 온
다. 그러면 농부는 그 아침
을 안고 한로 나간다. 청신
기양 고에도다.

입선 1 내 불쌍

불쌍은 재 연어가 가장 잘
보았다. 희포에게

작이 좋은 작품들

심자원 장 지용

결과 같은 어른이 해야 할
하는 것이지 아이같이 할까
는 것이 아니다. 만일 같은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이 있
을 수 있는 까닭이다. 그리
나 작이 좋지 못한 아이가
르면 쓸수록 '힘은 셀 수 있
을지 몰라도, 머리와 말성은
점점 나빠지는 수가 많다.
말과 글이라는 것은 원래 말
성과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니까 어머서부터 작이 그른
아이는 장래 바랄 것이 적
다. 작이 좋고 낮은 것을 다
지어 이런 작문과 풍요를 잘
았다.

작문 나의 발견장을 좋아
여 김홍길이라는 아이를 생
각해 볼 때, 아마 이것과 작
문과 나 우물일까 한다. "이
아이가 장래 이학자(理學者)
가 될까? 문학자가 될까? 하
는 말썬들이 났을 때, 나
는 "그 아이는 장차 문리학
자가 될 것이요" 하였다. 왜
그런고 하니 수리(數理) 집
수가 나쁜 학생이 장차 문학
자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석 문리학자인 까닭이다. 자
연(自然)에 대한 사랑과, 그
것을 이상히 여기는 마음과,
그 문학적다운 힘 있게 일어
나는 감정의 세력으로서 볼
때, 김홍길 소년은 작이 좋
은 즉 성실적이 형성한 아
이다.

내 이름은 김재희는
살 끼어온 아이며, 조선 사
람은 문학과 있어서 "유모
어"와 이삼로 풍성이 풍부하
고 있다. 영국 사람은 어론
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유
모어"를, 조선 소년 김재희
수가 소학생으로서 능히 그
것을 하고 있다. 김재희수
는 어론을 웃기고 기쁘게 하
고, 또 풍악한 어론이라도
웃음으로 작하게 만들만한

생활을 노래하라

심자원 이 원수

—작문—

특종 나의 발견장

작자의 생각과 행동이 아
무런 꾸밈도 없이 그러나 소
비 있게 사실적(寫實的)으로
진야 있기 때문에 작품 전체
가 무겁게 빛나고 있다.
과학(科學)에 마음 끌리는
작자(作者)는 글을 쓸때 있
어서도 선부르지 않고 차곡
차곡 확실하게 적어 내려
갔다.

대연하고도 속한 숨겨가
장대를 후방공개 하였다.

우물 1 내 이름

아들의 작문에서 이런 농
난한 말과 풍부한 "유모어"

아이다. 그러면 이 유모어
너무 유모어 소리 잘하면 인
된다.

이 유모어의 사용으로 간 둘두
매개라는 편지처럼 순서하고
인정이 무모적은 같은 서술
모았다. 이 유모어 선생님께서
유모어를 주라고 하신 것도 이
유가 당당하다.

중요는 나. 잘 모르니까
을 재희 선생님께서 일심한다.
그러나 이 영인 풍요물이 작
문보다 같이 떨어진다라는 의
견에는 나는 반대한다. 왜
그런고 하니 풍요가 작문보
나 훨씬 의미는 바랍이다.
마지 말하면 시(詩)가 모용
알모다 이러한 까닭이다.

를 재희 온 기억이 없다. 영
망하고 활판한 기상해 어른
도 한을 뒤집 지경이다.

마지 어른이 한 소설의 한
모모어를 하는 것 같다.

입선 1 부디부디 불조심

세목 부디가 세어있다.

동안 자리를 보는 세목 같
은 진 돌출하다. 그리고 국민
학교 아들의 작문이 다 좋은
데 서모하시는 선생님께 노
덕에 감사문을 드려고 싶다.

입선 2 피 자

말은 글이나 온 그대로를
세어있게 잘 썼다.

입선 3 우리 가게

살점이란 것은 온반 같이

인간 고관이란 영감을 가진 사뭇한이 경이하는 것은 아니다. 잘사란 것도 사의를 위하여 뜻 있는 일임을 깨닫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가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글에서 그러한 훌륭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좋았다.

● **입선 5 새 밭 자첩기**

아이들의 주고 받은 이야기마냥 어 내어 간 설명이 마흔지 모두 자연스럽고 구수하다. 3학년의 글로서는 감동할만한 작품이다.

입선 6 뚝 밭

여섯 일곱 살짜리들의 국민 이야기를 담은 그대로 써서 재미있는 글이 되었다.

— **통 요** —

특종 나뭇잎

중앙회차로 참은 교묘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눈 앞에 선하다. 그렇기라도 수미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은 저의 말을 적절하여 마르 가는 촌신의 어머니가 있는 산 그림이요, 사랑이 넘치는 경치다.

이런 3학년생의 작품으로서는 놀랄만큼 세련되고 균형이 잡힌 작품이다.

우동 1 나뭇잎

나뭇지개를 저고 가지말감을 걸어 오는 어떤 풍류의 맛이 가득하고, 고집고, 가졌기도 해서 뜻 깊어졌다.

자기 생활에서 노미를 맛는 것은 자기의 생활을 아픈 않게 하는 길이 된다. 유쾌한 일 화려한 일만 노미할게 아니다. 몸소 당하는 모든 생활을 노미하라.

우동 2 산골의 봄

꽃은 산, 깊은 봄짜기, 하얀만 처마되는 두네씩도 찾아 드는 봄과 세비.

이 신비로운 여자일때 대한 스년의 경이(鑑異)는 어론들며겨서는 일기 어려운 커마한 기쁨이기도 할 것이다. 첫 우정은 모하나 전파가 너무 깊어서 한 정보로는 계 좋았마르 생각했다.

보석은 수가 적어서 귀한 것과 같이 또한 표현할수록 많이 쓰기를 아껴야 한다.

우동 3 뚝오리 비판

재미있는 노래다. 나뭇잎이란 바람에 꽃이만 주리는 줄 안 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나뭇잎도 장난군 아이처럼 귀여운 농인 것을 발견한 걸로하다.

우동 4 뚝 밭

문을 드는 아욱, 흙을 머는 옥잠, 풀재들 가는 파수, 봄의 음지없이 차츰차츰 풀밭에서 가는 것을 일 모고 잘 노래했다.

우동 5 새 아침

죽이 없어도 시절로 일해서 노래 불려질 것 같은 시다.

입선 1 내 평생

사랑스러운 문생의 모양이 이 시를 속미 잘 나타냈다. 1학년의 글로서는 훌륭하다.

입선 2 제 비

명렬하나 무난하다.

입선 3 저편 노래

첫질과 글꼴의 대조(對照)가 어부운 저적이면서도 환하고 아름다운 담담의 경지와 기분을 잘 그려 놓았다.

입선 4 아가 뚝피

모피로 사랑스럽기너와 문어다. 쓰는 작자(作者)도 귀엽게 생각되는 것은 이 노래가 귀여운 동심에서 생겨난 까닭인 것이다.

입선 5 비둘기

작상(善想)이 좋았다.

입선 7 소

는 말에서 일만 하는 소와, 소와 함께 세력부미 일만 하시는 아려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 난다.

입선 8 개꾸리

무엇이 문한지 판대 모여서 운다는 것은 재미있는 표현이다.

범하고 나서

김종길

이런 귀 협회에서 발표를 교대하던차 임선 발표를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저의 잘 못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고, 저보다 주신대 대해서는, 무엇이 감사의 뜻을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물건을 보는 힘과 거짓 없이 쓰는 연습을 하며, 이 후로 여러 선생님들의 절대한 지도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김애리수

이번에 명예스텝제도 제작분이 우등에 뽑힌 것은 참 기뻐할 것입니다. 졸업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6년동안 내가 선생님께 배운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고, 이 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연자

나는 기뻐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작문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선생님이 나에게 특별히 잘 가르쳐 주셔서, 내 작문이 좋았습니다. 나는 이 후에도 작문을

계속 열심히 공부하여, 이 명예를 더 빛나게 할 작정입니다.

김창조

졸업을 앞두고 나는 큰 소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일평생 두 번도 없는 큰 기념입니다. 내가 선생님 때까지 시오미를 뛰어 갔다 온 것이, 아마 이번에 봉수해 볼게 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중학교 때 활자 하면, 작문 공부해 많이 힘을 쓰겠습니다.

변지호

임선 피었다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 다음이라도 많이 공부할 생각입니다.

이종욱

제 동요가 특선이 된 줄 알 것은 6월 30일 아침 학교에 오니가 동무들이 마더 오해서 나보다 먼저 알고 일종이다 특종이다 하고 떠들어서, 그제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은 나보다도 동무들이 더 좋아하는 편에 나는 아예 줄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은 동요가 특선까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기대하였지마는 학교 선생님과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기뻐 하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동요를 더 많이 쓰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서상근

저의 노래가 당선되었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공부하여 훌륭한 작품을 내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기쁠 때나 심심할 때 노래를 짓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앉아서 짓습니다. 우리 집 뒷동산에는 숲은 "나뭇길"이 있는데 제가 저 때 할 때 나뭇길은 한결 씩어지고 내며 읊니다. 저는 그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저녁 노래"는 동산에 말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지었습니다.

임영수

이런 뜻밖의 현상 모질게 임선이 되어 저의 이름이 크게 학교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우마 학교 명예라고 칭찬의 말씀이 있어 기쁜 마음 미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부끄러운 생각과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최인숙

우리 반에서 금강산 풍속이외 동요가 특종이 되고, 내 동요가 또 우등이 되어 나는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언니도 이번에 동요를 내었는데, 내 것이 우등이 되고 언니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제 것이 전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나는 동요를 쓰기보다

읽기를 더 좋아합니다. 앞으로 또 또 더 많이, 좋은 풍요를 하겠습니다.

이 종 민

선생님께서 내 풍요가 심신하였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 기쁘게 잠들었습니다. 풍요는 참 재미있어요. 수미가 재미있고 기쁜 때에 더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때가 있지요?

여러 분도 기쁘고 좋은

때에 한번 제이 보십시오. 참 재미나게 됩니다.

박 경 호

편편히 못한 제 작품이 심신되어 기쁘게 재미 있습니다. 이 주주여러분도 수미라고 문예부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 더욱 공부하여 좋은 말을 쓰겠습니다.

강 상 털

이런 작품 보실때 저는 어

려 공부들과 같이 내었으나 생각이 좋았는지 제 "새아침"이 수미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칭찬을 하여 주셨습니다. 공부들도 반가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우물을 텅다고 마음을 놓지 않고 더욱더 글 짓기와 풍요를 공부해서 장래 훌륭한 문학자가 되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주최 제 1 회

소학생을 위한 음악 연주회

"소학생" 독자도 초대 · 8 월 8 일 · 국제 극장

여러 분에게 참된 사랑 음악을 들려 드리고자 우리 "아침"에서는 이번에 가장 으뜸가는 음악가들을 모셔서, 오는 8 월 8 일매, 서울 국제 극장에서 "소학생을 위한 음악 연주회"를 열기로 되었습니다.

★ 출연할 악단, 학교, 음악가 ★

- | | |
|----------------------|-----------------------------|
| 1. 고려 교향 악단 | 2. 태화 여자 중학 합창단 |
| 3. 서울 태화 국민 학교 합창단 | 4. 서울 사립 대학 부속 중앙 국민 학교 합창단 |
| 5. 문 학 문 선생 (피아노 독주) | 6. 바 글 회 선생 (트럼페트 독주) |
| 7. 이 인 형 선생 (피아노 독주) | 8. 민 명 단 군 (피아노 독주) |
| 9. 김 형 선생 (피아노 독주) | |

날짜와 시간--8 월 8 일 오전 10 시, 오후 2 시, 오후 6 시. 이렇게 세 차례.

장소--서울 명동 국제 극장. 입장료 소년들 가진 분에게만 한함.

주 최 **조선 아동 문화 협회**
후 원 **서울시 학무국**



산 이야기

백두산과 천지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홍종인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역시 조선으로 올라온 조선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술하게 말한 시인이 할까? 아니면 제임스 러셀 윌슨의 조선을 가필 어찌 본 소학생들이, 아십니까?

정실적 무로는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어느 산보다도 으뜸이요, 3천만 동포의 정기가 모인 백두산입니다. 6천 년 역사의

흔히 잠진 백두산, 일찍이 서너해 이름 백두산 상봉에 선 때, 선뜻 눈앞에 펼쳐지면 만 세계의 천지 (天池), 필적으로도 어렵도 없는 크고 장엄하고 또 신비롭던 그 경관을 어찌 본적이 없는 한 번 보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잔설합니다.

잡아 세운 듯한 웅장한

적, 도는 산 나무에 올라서면 이 곳에서 저-쪽 가까이 사람의 모습이나 꽃아 볼까 말까하게 아득히 내려보는 그 넓은 눈망이 주는 감정이 깊어 보이는 감투를 할까 그쪽 저어 있습니다. 산



너머도 이 쪽저 쪽에서 볼 수 있는 바깥이 거울 같은 물 위에 비칠듯한 풍경을 그려고 가면 그 때마디 시시각각으로 물 빛은 영롱하게 반짝입니다. 저 편 산 나무에 한 조각 된 구름이 떠 오르면 그 하면 어느새 풍개풍개 풍쳐서 올라 오는 구름이 천진한 위를 덮어 누드며 앞

을 가립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이 이 쪽으로 물러 오면 우리는 어느덧 자유한 구름 속에 들어가서있게 되고 앞은 어두워지며 지식을 분간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진실에는 선뜻하네 소름이 끼칩니다. 천지에 서 물이 울리는 싸늘한 바람이 생기와 습기있는 구름을 실고, 온 것 새로 스며드는 그것도-그러마니와, 대 자연

(大自然)의 허

공이 가깝게 움직이는 순식간에 밝은 빛을 잃고 어둑 짙은 구름 속에 잠겨 버리게 됩니다. 그때 사람 하나라는 것은 너무도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무시운 듯한 웅장

한 느낌이 물러, 크고 장엄한 대 자연에 물러는 감이 남습니다. 백두산의 신명이 저를 수미불 감싸고 모는 것이거나 하는 삶가 등경하는 마음도 가져게 됩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구름이 승차 없이 날아 가면 맑고 맑은 별이 다시 그속한 천지 위에 일동하게 희롱합니다. 날 길게





수위가 30 여
미터 되는 데
호수(湖)를
가진 것이라
든가, 또 남
으로는 조선
반도로 번져
내려간 산맥
의 주봉(主峰)
일 뿐 아니
라, 북으로는
지 만주 대륙
을 걸쳐 산맥
고, 또 중국

이 편 유명한 영버스펠드
는 분이 60 년전 1886 년에
백두산을 탐험(探險)하고 구
바르메 소개한 것은 잘 알려
진 일입니다. 저를 나는 네
가 본 백두산만을 말하는
것보다 세계지 탐험가 얼버
스펠드 씨의 기록을 인용하
여 과연 백두산이 세계적인
존재인 것을 여러 분에게 알
려 주는 것도 흥미 깊은 일
이 아닐까 합니다. 즉 바르
메 씨의 "대륙의 심장"이라
는 책 중, 백두산을 최고 그
대로 옮긴 일부분입니다.

는 노란 꽃, 분홍 꽃, 이를
모를 조그마한 고산 식물(高山植物) 꽃이 따져 꽃 무더
를 논 꽃자미 같이 깔려 송
이송이 바람결에 하얗거리
고 있습니다. 즉 알질때 함
침까 말한 자국 옮겨 놓기
조차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입이 굳어 버렸습
니다. 물론 나 하나 뿐이 아
닙니다. 모두가 가슴이 먹차
오는 것을 느낄 뿐, 위대한
천지의 모습에 감히 입을 벌
려 말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
니다.

2,764 m. 세계의 높은 산
을 이룬다면 이보다 높은 산
은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산세가 웅장하기와
또 산 위에 실로 "하늘 아래
꽃"이라고 할 동서가 약 5
리, 남북이 약 10 리에 그

땅 산물(山京) 지방에까지
대어 뻗어 있었습니. 옛날에
는 화산(火山)이였으나 지금
은 휴화산(休火山)으로 되어
있어, 산 전 층이 규모가 웅
대하고 특이한 점에서도 유
명하거나와 조선과 만주의
모든 중국인이 세로부터 거
룩할 성산(聖山)이요, 신명
한 영봉(靈峰)이라고 수백의
모시고 있는데, 이 산은 머
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
니다.

그러면 백두산은 우리에게
꺼리만 소개하라고 자랑하는
산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
니다. 서양에서도 아는 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
부터 구마라 사람들이 여러
차례 탐험한 일이 있는데,
옛날 영국 왕립 지리 학회
(英國王立地理學會) 회장

"우리는 육화산(陸火山) 위
에서 있었다. 높은 바위 전
한 남빛 산은데, 그것이 서
서 작작오도 변하고 있다.
이 호수(湖水)야말로 그 위
직도 보듯져, 또 그 상질로
보듯져, 산 위의 함 목전대
짜미를 잡고, 사방은 질척으
로 물이 퍼진 마면 말미 미
질 데 없는 것이었다. 할 때는
호수가 보내며가 보려고 했
으나, 바람 덕으로 내려 갈
속한 길을 찾아 낼 수가 없
었다. 다시 우리는 바위 등
을 기어 올라 이 산의 상상
봉 속 "영원히 흰 산"이라
기때 올라 섰다. 그리고 거
기서 사방을 돌아 보니, 이
산에서 동서 남 북으로 무
수한 옛말이 수문로 뒤덮여,
마치 대대의 불경처럼 같



이 밑에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 작은 단주요, 저 작은 조령이요, 바위도 불려야 할 가운데, 사파리아(파란모석)처럼 푸랏게 할 아래 보이는 호수를 내 놓고는, 보이는 것은 삼림(森林) 뿐이었다. 호수는 수위가 약 6.7 마일(哩)이나 되어 보이고, 건너 편 쪽으로도 빠져 나가는 물줄기, 송화강(松花江) 될 줄기의 한 가닥이 되는 근원일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보면 이것이 바

도 그 고기와 응대하기도 이 때 더 알만한 것이 없어 보이면, 흑룡강(黑龍江) 근원의 중요한 큰 물줄기의 한 가닥이었던가 하고 생각된다. 나는 마시금 수미 일행이 그 여행의 목적을 이룬 것을 기뻐했다. 우미가 잦은 모험을 다한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만족히 여기며 산을 내려 왔다. 장백산 위에는 눈이 쌓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산은 확실히 희다. 일부 눈이기는 하나 흰 것은 사실

이다. 그것은 옛날 회산이 여러 나을 때의 경석(經石) 때문에 흰 것이었다. (경석은 물에 뜨기 때문에 푸석이라고도 한다) 어쨌든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만 하다. 아니 이 산의 높이에 대한 것보다도, 산을 올라 다니는 길가에 꽃밭이 있고, 샘밭이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내고 있는 것, 그리고 산 위와 신비로운 고요한 호수를 발견한 것이 다시 없는 만족이었다."



바다 이야기

연평 조기 잡이

경향신문 기자 문 제안

인선(仁川)에서 발동선(發動船)으로 여덟 시간 동안 하늘과 물만 바라보며 서북쪽(西北北) 쪽으로 달려갈 조기 잡이도 유명한 연평도에 도착한다.

섬의 위치(位置)는 동경(東經) 25 도 45 부, 북위(北緯) 37 도 30 부로서 북쪽으로는 58선 절경일 본토(本土)의 울진군(甓津郡)이 바다 건너 멀리해 바라보고, 그 밖에 북쪽과 남쪽과 서쪽 3 면은 끝 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만이 내려

보이는 사방 40 리 밖엔 안되는 처파도 떨어진 조그마한 섬이다.

섬 남쪽 양지 바른 포구(浦口) 앞까지 4백 호, 천 여명 도민(島民)이 용기종기 모여서 파도 소리 조용히 들으며 갈매기를 빗살아 경화스릴게 사는 이 연평도는 조기 때가 들며 을 때까지는 참으로 좋은 나라 같은 곳이다.

그러나 전라 남도(全羅南道) 남쪽의 깊은 바다에서 겨울을 지낸 조기 때가 남쪽에서 밀려 올라오는 조수난

류(嬰流)가 너무 커서 물에 맞지 않아서, 관물을 따라 자미를 뜨기 시작하여 4월 중순경에 전라 남도 칠산(七山) (本名은 牛耳島) 할 바다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 와 6월 중순경 연평 할 바다에 밀려 들면 곧 나라 갈던 연평도는 잘사기 번창(繁昌)해 전파.

섬의 배들로 조기 잡이에 쓰는 커다란 그물 안강망(鰐鰓網)을 손봐서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지만 경상 도(慶尙道) 근방으로부터 전라 도(全羅道) 충청 도(忠淸道) 경기 도(京畿道) 황해 도(黃海道) 등 자자의 어선이 전루 마 모여 들어 9월 어 적이 나 퍼는 어선이 포구 앞뒤에 뚫을 내리고 그물을 다시 한번 손봐서 자루자루

서며 놓고 먹물, 쌀, 장작 등 모든 준비를 다 해 놓고 조수가 한껏 많이 밀려 들어 왔다가 급하게 물이 나가 조기 잡이때 가장 좋은 "사더" 때를 기다린다.

38선이 없을 때는 평안도(平安道) 밖에서도 물이 외이선이 더 많이 모여 들어 조기 때를 기다렸었다.

이같이 어부들이 조기 잡이 준비를 다 해 놓고 사더 때만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조기 때는 선덕박곳속 진흙 구멍이들이며 저리 해메미 알(卵) 까 놓기 좋은 곳을 찾아 다닌다.

이같이 조기 때가 알 짙 자리를 찾아 다니는 동안 어부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더" 때가 오면 지금까지 잔잔하던 바다는 갑자기 어지러워져서 바람은 억세게 불고 물결은 미친 듯이 파도처럼 조그마한 어선은 즉시 뒤집어질 듯 흔들린다.

그러나 짐꾼은 일과 때 벌어진 어깨와 무릎 짙은 끈

다리를 자랑하는 바다의 용사(勇士) 어부들은 억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조금도 부시워하지 않고 이때에는 뽕 무명 수건을 짙은 용어대고 팔 다리는 시원스럽게 치켜잡고 울리고 한 손에는 쇠(籠)를 잡고 한 손에는 그물을 들고 돛(帆)을 높게 달고 울잡스럽게 파도를 치며 바



다로 나간다.

높은 선장은 진다만 참대의 속을 뚫어서 만든 장대를 물속까지 넣어 조기 때를 찾는다.

조기는 물 속을 헤엄쳐 바닐 때 개구리 우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조기 잡이들 오 때만 사람은 10~15나 20 미

밖에서도 조기 때를 찾아 낸다.

영문 환자(患者)를 청진기(聽診器)로 진찰하는 의사 모양으로 이머 저머 장대를 바다 속에 넣어 조기 때를 찾던 선장은 조기 소리를 듣고 조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는 것을 짐작하고 물결이 제일 빠르고 가장 세한 바다

속을 들락거리며 길이 80 미나 되는 그물을 내려놓고 명명한다.

어부들이 물 속을 내려고 밧줄을 바다 속에 던지면 나을 자 극자극 사더 구웠던 그물을 손서해 따라 바다 속에 던지면 세한 조수는 그물 입을 벌여 놓고 조기들이

어름어름할 대로 없이 한 번에 몇 만 마리를 잡아 넣어 주고 물러 가고 만다.

조기 때는 영문도 모르고 밀려 왔다가 그물에 걸려 오모 가고 못하고 서로 서로 몸을 부딪쳐 가며 도망갈 궁리를 하나, 선채 빠르고 세한 조수를 죽이라 어찌할 도리

가 없다.

이 잠이 바빠 숙면시 조기가 물이 끓어오르고 있을 때 배 위에서선 선장과 어부들이 상태를 다시 바다 속에 넣어 그물 속에 조기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나 주의해서 듣고 있다.

조기 때는 열 세 없이 그물 배 걸러 붙어 그물이 조기 무게로 속 떨어져 배가 그물 밖으로 기운다.

속임 많은 깊은 사공은 몇 차례 물이 활활살살 넘어 붙어 차고 머기마미사코 배를 쓰나 높은 선장은 그물을 걸이 올리라고 명령한다.

7, 8 명 높은 사공은 부의 잠이 흔들릴 때까지 이속하게 움직이며 몇노래를 불러 가며 그물을 끌어 올린다.

그물이 배 3분지 1로 안 올라 왔는데 배 앞에는 그물 배 가진 조기 배가 물 위에 떠버리고, 큰 배가 그물 따서 일곱명쯤 기어 오른다.

어디선지 갈매기가 한 마디 날아 내리 와 그물에서 빛이 나온 조기를 한 마리 입에 끼어 들고 도망친다.

"조짐이 먼저 먹네"
어부들은 세지가 나서 조기 끌고 잔갈매기를 소리쳐 보내며 언발나 그물을 끌어 올린다.

성미 강한 깊은 어부는 삼

더기를 솟아다 조기를 배 우에 끌어 올리기까지 한다.

누르다 못해 물은 빛까지 나는 실실한 조기가 배 위해 안잠이 깰이며 배 속이고 어리고 할것 없이 조기를 끌어 올리 놓는다.

간혹 먼이 가지어오 따라 올라 오면 "술안주 뒷잡으로 좋다" 고 어부들이 좋아서 뛰는다.

그물을 다 올리고 보니 조기가 3 천중, 한 봉이 천 마미 나마 작으면 3 배 만 마미.

조선의 3대 어장의 하나도 속명하기는 하지만 한 그물 배 조기가 3 배 만 마미마미 삼으로 놀라운 곳이다.

그러나 어부들은 한민 그물 배 만족하지 않고 언발아 붙어 오는 조기 배를 언발아 습격한다.

이잠이 하여 "사미"를 전

후한 3 일간, 시간으로는 실로 72 시간 동안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잠은커녕 험 내도 없이 그물질을 계속한다.

연평(延坪) 사흘

조기 잠이 때는 20 여일이 라고 하나 정말 조기가 많이 잡히는 것은 바람이 역세게 불고 거센 파도가 몹시 쳐서 가장 위험한 이 "사미" 때 사흘 동안이다.

이 사흘 동안 어부들이 목숨을 내 걸고 바다와 싸워 조기 머리를 잡아 올리는 동안 섬에서는 이들 어부들을 맞아 끌어 위로하여 술 크나 큰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락을 치고 떡지를 잡고 술을 사며 놓고 바다의 용사들이 바다의 선물을 배에 하나 가득 싣고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섬 이야기
후산도를 다녀 와서
정당신문 기자 최영수

우리 조국은 반도(半島)이어서 바다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바다의 나라라는 것을 잊고 살 곳이 될 수 없을 만큼 섬(島嶼)이 많지만 또한 섬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잊고서 사는 우리

입니다.
섬...하면 얼핏 생각하기를 해주도(濟州島)와 울릉도(鬱陵島)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지도를 펴 놓고 보면 그 밖에도 수많은 섬이 있고 또 이

자세한 지도로 보면 파도 통
만한 섬이 몇백으로는 셀
수 없을만큼 많고 그 섬들이
목포(木浦) 근처에 더욱 많
아서 섬이 많은 곳을 말하여
다도해(多島海)라고 하는 것
입니다.

섬은 바다 속에 있는 산이
라고만 생각하여서는 안됩니
다. 바다 속에 솟은 조그만
육지(陸地)라고 생각하는 것
이 바른 것입니다. 그것은 섬
에도 경지가 있어 집이 있고
논과 밭이 있으며, 산이 있어
나무도 있고 꽃도 피는 때문
이며, 섬에 따라서 나는 물건
이 다른 때문입니다. 그러므
로 섬을 가 보지도 못하고 섬
의 이야기를 듣지도 못한 어
떤 이들은 섬이 어떻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겠지만 섬마다해
섬사람이 있고 섬의 자연(自
然)이 있고 섬의 생활(生活)
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한 바퀴 돌아 보
고 온 섬의 이야기를 들려 드
려기로 하지요.

x

목포(木浦)에서 풍력선(發
動船)을 타고 바다로 나갑니
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섬
이 많으니깐 배는 섬과 섬
사이를 마치 스케이트 라는
것처럼 흘러 갑니다. 환풍사
진을 보는 것처럼 한 섬이
없어지면 또 다른 섬이 나타



호수(湖水)를 가는 풍력선 (풍력선)

납니다. 동네 아이들이 손을
들어 우리 배를 만져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너댓 시
간을 가면 그 많은 섬들은
잔 곳이 없고 물결이 높이 솟
아 떨어지는 넓은 바다로 나옵
니다. 그리고 수평선(水平
線)이 보이는 곳에 마치 옛
날 에기를 담뭍 지니고 있는
나라처럼 갈쭉한 섬이 한 개
위에 손쉽게 떠서 보입니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는 그 섬을 향해서 가고 있
습니다. 한 두어 시간 남짓
가서 배를 댈 곳——이곳이
바로 대흑산도(大黑山島)라
고 하는 섬입니다. 이 섬은
서남쪽(西南)에 있는 경치 좋
고 덩치 큰 섬으로 전라남도
(全南) 무안 군(務安郡)에
속한 섬입니다. 이 섬뿐아니

라 이 섬을 중심으로 하여 바
른 아홉(九)개의 조그 작은
섬을 합해서 흑산면(黑山面)
이라고 부릅니다.

배를 내릴 곳은 전미(德里)
라고 합니다. 이 전미에는
흑산 면사무소가 있고 국면
학교가 있을 뿐 164 호의
인가가 돌담을 높이 쌓고
승기둥기 모여 있습니다. 내
가 이곳에 도착하기는 저녁
무렵이었는데 풍력선이 들어
오니깐 국면학교 어떤 이들이
한 10 여명 나와서 인사를 하
여 맞아 주고 누가 이르지도
않았지만 손에 든 물건을 받
아서 물어다 주었습니다. 이
날은 배에 시달리기도 하여
그대로 자고 이튿날 아침 무
려 다시 배를 타고 섬의 경
치 구경과 또 고기 잡는 풍경

과 또 조갯속을 따는 여자를
 과 또 물속에서 들어가서 해삼
 이며 전복이며 미역을 따는
 동경을 구경하며 나왔습니
 다. 그때서 고지산 쪽인 바
도 앞해 편이서 있는 섬에
보목미(橋木巖)라는 곳입니
 다. 이곳에는 새끼부터 무한
 새끼들이 새를 하고 한 마리
 모여들었다. 그들이 하는 일
 은 바다에서 짐승(잡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들어가 따
 는 것)입니다. 지조개(地蛤)
 라는 조개를 잡는 새끼들이
 살은 살 때로 모로 바리(貝類
 -조개의 아래 귀를 연결하
 는 살)는 바리 때로 모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살은
 것을 잡고, 바리는 팔아서
 중국(中國)으로 파는 것인데
 이것이 어쩌나 담은지 까
미엔 필필이 조그만 산을 이
 무고 있는 때는 입이 딱 벌어
 졌습니다. 다음에 새를 팔며
독산도의 경치를 구경하며
 왔습니다. 물결과 바위에 서
 말면 섬의 바위는 모두가 이
 상하지 않은지였습니다. 그
 때로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떤 분이 저를 물어볼 때
 그 저를 속의 나라가 보코 싶
 듯이 물 속의 나라가 보코
 싶었습니다. 이를 보물 해초
 (물 속의 난 풀)가 온성거리
 는 사이로 울긋불긋한 물고
 기들이 꼬리를 치며 놀고 있

는 것이 마치 큰 어항을 물어
 다 보는 것 같고 손을 넣으면
 물 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름답고 신기한
독산도를 한 바퀴 돌고 저
다시 바다 저 편에 있는 동도
 (虹島)라는 섬으로 발을 걸
 졌습니다. 두 시간 반이나 가
 서야 동도에 있는 석촌(石
 村)이란 동네에 내렸는데 여
 기서는 이곳 여자들이 물속
 에 들어가서 해삼, 전복, 미
 역 따는 것을 보기도 했습
 니다.
 누나 어머니들이 한 20
 명, 그 뒤를 물속으로 수영
 실 뛰어들어 가던 것은 바
 다까지 단숨에 내리 가서
 어있는 해삼이나 전복을 잡
 아가지
 고 술
마습니
 다. 아
 지 물
 이 차
 고 또
 습이 가
 르니까
술마
 참
 다. 내
 미 가
 고 다
 시 또
술마
 오
 고 하
 는 때
 보
 는 사

많은 신기한 것 같으나 그분
 들은 참으로 고생스러운 일
 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동네 어떤 이들은 바위 위에
 와우를 띄워 놓고 누나, 어머
 니의 손을 저기에 어떤 동생
 을 등에 업고 물속의 어머니
 가 일흔 달은 해삼이나 전복
 을 따 가지고 올라 오기를 기
 바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니와 아버지는 바
 다 밑에서 고기를 잡으며 나
 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사는 사람—미
 우기인 바다 속 조그만 섬
 에서 사는 사람들의 억세고
 굳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할 때 조그마한 괴물해도
 파충을 내는 우리들이 무고



독산도 죽간 학교가 있는 바다 풍경

답게 생각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국민 학교가 없고 장승소가 있다고 하나 잘 건이 바빠 볼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 꽃이 죽학(竹翼)이라는 꽃입니다. 경사가 심하게 잔 꽃에 한 60 호 나란이 있는 동네입니다. 우선 이곳에 와서 놀란 것을 이 동네에는 수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섬 밖으로는 영영 섬이라곤 없는 이 외로운 섬에 사방에 "망망대대를 두고도 먹물 풀이 없어 산봉성을 넘어서 있는 조고만 섬 하나로, 이 동네 사람이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이 어떤 할 것 없이 시간만 있으면 풀갈어 오는 것이 큰 일입니다.

그 훌륭한 굴강산보다도 더 경치가 훌륭한 꽃이 이 후도입니다. 하도 아름다워서 나는 여기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에 세수를 못했습니다. 먹물 풀도 귀하니 어찌 그 고성을 하고 때 온 풀로 세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 분! 라디오도 없고 신문기며 잡지도 없고 학교조차 마땅한게 없는 섬의 어린이들—외롭고 쓸쓸하면서도 살기 위하여 산으로 바다로 오르고 내며 굶게 억세게 일하며 자라는 섬의 어린이들—그들을 생각하고 늘 부지런히 공부하며 집안 일을 도와야 하루바탕 좋은 때가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분은 마 본 그림책, 만화책 같은 것도 그대로 방구석에 버려 두지 마시고 설

매 있는 교직원 공부할때게 보내 주지 않으렵니까?

—끝—

(문) 여러 선생님께, 수필들이 재미있게 읽고 있는, "소학생"을 만들 어 주시는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소용 국어"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 국어 책에, 한자로 위에 또 그렇게 써 쓰는가요? 그리고 한자로 위에 쓸 수 있는 것도, 쓴 것도 있는게 왜 그럴까요?

2. 공민 책에는 그림이 있는데, 국어 책에는 어찌 그림이 없는가요?

3. "소용 국어 교본"의 제목에는 "세 일과"라고 쓰고, "소용 국어 2학년" 책에는 "세 일과," 이렇게 써서 쓰기가 손일이 안되어 있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르며, 어느 것이 옳은가요?

4. "소용 국어 교본 하"의, 68 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부처님"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부처스님)" 이렇게 쓰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5. "소용 국어 하"의 75 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갈지"라고 써 있는데 아마 이것은 "갈이"라고 써야 할 것이 아닐까요? "갈지"와 "갈이"를 구별해 주시죠?

6. "소용 국어 하"의 76 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반들반들" 이렇게 되어 써 있는데, "반들반들" 이렇게 써서 쓰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전 내용도 5 년 용 기호)

(답) 1. 앞으로는 각각의 한자를 한 쓰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는데, 아직은 사회에서 한자를 전혀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만큼 저쪽 사회에서 쓴

고 있는 한자로, 우리가 알아야 할만한 한자는 되찾아 하므로, 한글 위에 조그맣게 붙여 쓴 것입니다. 또 한자로 쓸 수 있는 것도 한자를 안 쓰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한자를 정작하지 않고도 대입해 알아 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2. 국어 책에도 그림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예쁘게 같이 그려 놓았으나, 인쇄가 힘이 들고, 또 시간 여유가 없어서 이런책은 못 넣었다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그림을 넣어 인쇄 할 것입니다. (이상 편수국 부속일장 서열 선생의 답함)

3. "세 일과"나 "세일과"나 다 괜찮습니다마는 국어 교본에서 이것을 통일 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편수국의 실수일 것입니다. 원칙 대로 쓰자면, "세 일과" 이렇게 써야 합니다.

4. "부처님"이 옳습니다. "아릿님" "어릿님" 이 아니라 "아리님" "어리님"이 옳고 합니다.

5. "갈이"가 아니라, 적 제로, "꽃과 갈지" 못하고, "가" 옳습니다.

"갈이"는 "매물은 누구나 목갈이 받아야지." "나하고 갈이가." 이런 데 쓰이고, "갈지"는 "너 귀하고 목갈지 해?" "꽃과 갈지" 못하고 (꽃에 어그러져서), "이런 데 쓰인다.

6. "반들반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 화에도 이러한 어찌의 (副詞)는 원칙적으로 다 붙여 씁니다. 즉 "반들반들" "떠들떠들" "뚱뚱뚱뚱" 모두 다 이렇게 합니다. (편집실)



과학(科學)과 과학정신(精神)

김동일

원래의 인간은 과학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가 없다. 과학의 원리(原理)를 응용(應用)하지 않고는 농업이나 공업이나 모든 산업(産業)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가 아직까지 일어나서 저녁까지 팔레까지 직접(直接) 혹은 간접(間接)으로 과학의 혜택(惠澤)을 받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과학자이며, 과학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이 기술자이다. 그렇지만 과학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기술자가 될 수 없으며 또 기술을 이용(利用)하지 않고는 과학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무의 뿌리가 없이 잎이 돌아날 수가 없고, 잎이 없이 뿌리가 현이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과학자는 과학이라는 나무의 뿌리에 바탕(結實)하여, 기술자는 잎이 될 수 있다. 그러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위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과학자가 한 원리를 발견할 때의 만족은 그것이 인간 생활에 이용적이라고 하여서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반대로 처음에는 아무 가치도 없던 것이 몇 10 년 또는 몇 100 년 후에 비로소 그 이용 가치를 발견할 때가 많은

것이다. 이런 학자가 과학 원소(化學元素)를 발견하였을 때 있어 있던 정신이,

“이 원소는 무슨 곳에 손을 집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학자는,

“찾던 어떤이제 무슨 이용 가치가 있을 것인가?”

하고 대답한 것을 뜻 깊은 말이다.

유명한 물리 학자인 갈라브와 플랑크가 처음에 전류(電流)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무 이용 가치도 없었으나, 그 후에 전기 공학(工學)이 정장되게 발달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이 전기의 혜택을 입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자가 연구하는 것이 될까면 과학을 하는 그것 자체(自體)가 중요하고 또 귀중한 것이다.

어찌 분야 학문이나 가정에서 조그마한 실험(實驗)이나 또는 고안(考案)을 할 때에 그 실험과 고안의 이용 가치가 있고 없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용 가치의 대소(大小)와 유무(有無)는 별 문제로 하고, 그 실험과 고안의 결과를 학교에서나 혹은 전람회(展覽會)에 발표하는 그 정신이 귀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신 즉 과학 정신이 전국 면면하게 보급(普及)할 때

에 비로소 우리 나라의 과학의 수준(水準)이 높아지며, 동시에 위대(偉大)한 과학자와 기술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 정신은 단지 과학자와 기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政治家)나 실업가(實業家)나 관료(官吏)나 기타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할 정신이다.

원래에 있어서 과학이 발달한 발달을 하였고 또 인간 생활에 위대한 공헌(貢獻)을 한 반면에, 과학자들이 과학의 진리(真理)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종교(宗敎)와 철학(哲學)의 진리를 무시(無視)하는 경향(傾向)이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과학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리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과학의 진리와 동시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철학적 종교적 진리가 있다는 것을 세계의 진정한 과학자들은 겸허(謙虛)하게 인정(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활은 물질의 세계와 떨어져서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서로 병행(併行)하여 발달함으로써 비로소 만물의 성장(生長)의 존재도 영구히 번영(蕃榮)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서울 숭실 대학 학생)

창편 모험 소설

곡아단의 비밀

특정 극성 지음
정현웅 그림



5. 어두운 밤에

자기가 조선 사람이거나
자기 고향이 서울이거나, 어
두운 밤에라도 서울 거리해
를 나가 보고도 싶었습니
다. 할 수만 있으면 들레 나
가서 아무 집이나 조선 집이
면 뛰어들어 가서 살려 달
라하고 싶것 솔어 보기도 싶
었습니다. 그러나 아아, 그
러나 이 밤만 자면 서울도
영 이떨린대, 천수의 밤은
깊깊 깊어만 갔습니다.

조선 말도 모르는 어린 무
들이 조선에 떨어져서 죽든
지 살든지 이 밤에 도망이라
도 해 나갈까 하였으나, 술자
는 마누라 방에 잠혀 자고,
어른 대문 열 방에서는 단장
의 부하가 독수리 같은 눈으
로 지키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전기등을 가
리고 살호는 자미대 누웠습
니다. 눈을 감고 바른 팔목
으로도 눈 위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고 가
슴 속은 향망이 짙을 지 못
편편편 편 되었습니다.

날만 밝으면 서울로 마지
막이요, 부모의 초치도 영영
모르게 되는 편이니, 어찌
편한한 잠이 들 수 있었겠습
니까?

시계 소리가 들릴수록 맘
이 깊어 갈수록 눈은 점점
더 젖은 갈아지고 가슴은 더
속더속 뛰었습니다.

밤! 깊은 밤! 개도 차고
한길도 차고 열풍까지 저풍
까지 잠자는 깊은 밤! 세
상은 무덤 속 같이 고요한
데, 여관집 뒷길 변소 옆 오
동나무 밑에 무언지 가끔 가
끔 꾸물꾸물 숨지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날이 오겠는지 별 하나 보
이지 않는 캄캄한 밤, 우중
충한 처골 속에서 이따금 꾸
물거리는 이상한 그림자! 그
것은 이 밤에 말을 뛰어 도
망하려고, 몸을 떼서 나온
살호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가 쫓아 나
오는 듯 나오는 듯 싶어서
살호의 눈은 마르도 떨어지
마는, 천천천히 몸을 일으
켜서 가서도 알고 꾸물꾸물
하곤 했습니다.

"이제 가세, 이제 만나오
나? 잠이 들었을 이가 없
는데....."

살호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
다.

"풀키기 전에 얼른 나와야
할 데인데....."

하도 무섭고 잠잠하여 살호
는 또 중얼거렸습니다. 그 때
부치지 부치지 여관 마루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
습니다. 살호는 울짖하여 번
소 벽에 바짝 붙어 있었습
니다.

누구일까? 술자인가? 말
놈인가?

눈치를 띄며 고개를 내
어 밀고는 싶고, 내어 보면
물길까 짐은 나고, 살호의
가슴은 옥조반처럼 움츠렸
습니다.

말자국 소리는 술자인지
누구인지 민소 복소로 자주
가까이 왔습니다. 누구냐?
누구냐? 살호의 가슴은 찢
김 더 되었습니다.

어플 속이라 자세히 보이
지는 않으나, 민소로 오는
사람은 민소때는 물어 가지
않고, 민소 앞을 꼭 내어다
보았습니다.

술자, 술자! 하고 살호
는 입을 꼭 내어 밀었습니다.

"여기다! 여기 있다!"
소리가 옥구멍까지 나왔습니
다. 그러나 살호는 그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술자인지? 누구인지? 그
는 다시 민소로 물어
가 버렸습니다.

"아니구나! 잘 사람이구
나!"

살호는 삼간 마음을 놓았
으나 그러나, 여기 있다가
그 사람에게 물리면 어쩌나
싶어서, 가슴이 다시 두근두
근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널한지 하나 기대
있는 민소 앞을 물리면 어찌
나 싶어서, 살호는 말할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편을 보았
는지, 대편을 보았는지, 민

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놈아!"
하고 외마 찰라 할 것 같아
서 살호는 정신을 음침하였
으나, 그 사람은 거기 살호
가 있는 것은 꿈에도 모르
고, 민소로 걸어서 방으로
들어 갔습니다.

"후유"
살호는 재로 살아난 듯이 숨
을 들며 쉬었습니다.

마사 한동안 고요하였습
니다. 민소때 나왔다가 물어
간 사람도, 지금쯤은 다시
고요한 꼴이 되어 들었을 때
였습니다.

"어찌가 어찌 한 나오나?"
살호의 가슴은 조마조마하
였습니다.

마사 한 동안 고요한 어플
속에서, 가늘게 가늘게 사뭇
사뭇 들며 기어 나오는 듯
싶은 말자국 소리가 들렸습
니다.

"이제 나오느냐!"
하고 살호는 머리, 옷가슴을
어끼고, 허미머를 둘러 때고
웃소며를 걸고, 가쁜히 차며
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여전히 무
장망이 짙을 했습니다. 숨이
진절로 험미거렸습니다.

"무사히 무사히 저 담을
넘어 가야 할 데인데……"

사뿐사뿐 말자국 소리는
가까왔습니다. 그는 자미웃
을 입은 재도 기어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소 앞까
지 나왔습니다.

"여기다! 여기다! 이리
오너라."

살호가 속살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마루에서
사뭇 내머시, 살호에게로 마
가했습니다.

살호의 가슴은 어찌 뛰는
지 가슴이 어질 것 같았습니
다.



“자, 어서 가자!”

상호는 외박 딸러 들어 그
출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상
호는 그 손을 잡자, 마자 깜
짝 놀라,

“악!”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
다.

6. 도망! 도망!

깊은 밤 도망을 해 나가려
고 뒷간에 숨어 서서 순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상호는,
그 때 물매 기어 나온 것이
순자인 줄 알고 달려 뛰어
보니, 큰 일 났습니다.

천만 천만 뜻밖에도 그는
순자가 아니고, 만장의 마누
라였습니다.

깜짝 놀란 상호 소년이 저
질도,

“악!”

하코 소리 질 때, 벌써 그
계집은 놓치지 아니하려고,
목사 같이 상호의 팔과 몸매
휘잡았습니다. 그리고 안 쪽
을 향하여 잡았다는 소리를
저르며 하였습니다.

“큰일 났다!”

생각한 상호는 앞뒤 입을 헤
아려 볼 사이도 없이, 급히
바른 손으로 계집의 입을 으
러막으면서, 목을 졸라 깨 안
았습니다. 나이는 어찌도 불
굴된 몸이라 여자 한 사람쯤
은 우스웠습니다.

그 때서운 목사 같은 계집
도 상호의 손에 걸리어 숨이
막히고, 목이 ‘줄러’ 죽을듯
살듯 끼룩끼룩 하면서, 무

다리를 비둥비둥할 때,
그때에 안마루가 동쪽
거리면서 시꺼먼 손
사람이 또 뛰어 나왔
습니다.

“이 떠다간 안되겠
다!”

생각한 상호는,

“앵!”

하코 소리 치면서 계
집의 몸을 외박 밀어
서 쫓아 나오는 음매
계로 던지니, 나오면
음은 밀안간대 계집의
몸을 밟아 앉고 쓰러
지고, 그 틈에 선뜻
상호는 그에게서 잘너
뛰면 꼭마만 숨어도,
제마 같이 날아서 뒤
따 뒷담을 넘었습니다.

쫓아 나오다가 쓰
러진 단장이 마누라의
몸을 잡아 일으켜 놓
고, 뒷담을 넘어서 한길로
나가 휘휘 휘둘 때, 밀서 상
호는 어디로 갔는지 그럴자
도 없었습니다. 상호는 과연
어디로 도망갔을까?

이관 안은 벌써 뒤집혔습
니다. 단장의 멍멍으로 무하
플은 돌린 눈을 비비면서 웃
물을 입고 나섰습니다.

단장 내외는 순자를 두드
리면서,
“어디로 도망갈 약속이었
느냐?”

고 그것을 대라고 조면질을
하고 있고, 여미 멍의 무하
는 ‘이 끝까지 끝까지 문간
해 팔아 가지고, 일제히 상호
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7. 거리에서 돌면서

한길로 잡히고, 외출로 한
사로 모를 모는 깊은 밤, 암
암한 밤, 세로 무시! 음매
도망을 해 나왔으나 어디로
고 할할 곳이 없는 상호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가
할지 가슴만 울렁거리고 눈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저를 잡으려
고 쫓아 오는 듯 오는 듯 하
고, 잘 곳은 없고, 떠돌이
음으로 뒤를 돌아다 보코 출
아다 보코 하면서, 상호는
마져서 구미를 전노코,
상호는 길을 지나 목마르
도 풀면 길까지 오니까, 가



습이 조금 풀리고 슬렁거리며, 옛으면서 오랜 편을 모으고 클는 가슴이 진정되는 대신에 새리워 울고 싶은 생각이 자주 왔습니다.

살아서 아니하려고 남쪽에서 목욕을 할라기 길고 모르는 조선 사람 공부를 찾아 건너 오기는 했으나, 내 몸이 조선 사람이라고 알아 줄 사람이 누구며, 오할 밤 한 달이라고 내 몸을 세사 할 사람이 누구라 싶어서, 결국 모를이 없기마루 망설기면 때 라일없는 본질만 이오 뜻이 올랐습니다.

절이와 단지라는 말 곳이 없고, 집이와 단지라는 말 곳이 없어서, 살호는 본질을

찾으면서 오랜 편을 모으고 클 아실 밤에 수가 없었습니다. 맑은 새 시나 저있을파 때, 때는 알주정군 하나요 보이 지 않는 쪽은 길을 전어서, 살호는 살호 든 길도 아랐 습니까.

하는 수 없으나 살호를 공원 때라도 가서, 문명의 위해서 라고 이 밤을 저내리는 몸방 하고모 가없는 생각이었습 니까.

그러나 밤이 풀서도 깊은 지파, 공원의 상할 분도 귀 감져 있었습니까, 여기서나 잘라 하고 믿고 는 것이,

"여기로 왔었구나....." 하고 돌아 싶 때, 하아, 신

새 울음한 살호는 그방 살호 의 울고 있었습니까.

울음한 살호는 그방 살호 의 울고 있었습니까. 울음한 살호는 그방 살호 의 울고 있었습니까. 울음한 살호는 그방 살호 의 울고 있었습니까. 울음한 살호는 그방 살호 의 울고 있었습니까.

같이 도망하려고 새벽 두 시에 살호는 그방 살호 의 울고 있었습니까. 울음한 살호는 그방 살호 의 울고 있었습니까. 울음한 살호는 그방 살호 의 울고 있었습니까. 울음한 살호는 그방 살호 의 울고 있었습니까.

가죽이나 모직에서 전신해 떠떨게 믿어 들은 살호가, 꽃 전더어 소라 저 술먼서 떠맡는 모양이 본질된 눈 매 자주 보았습니까.

공으로, "오할 밤만 참아라, 어떻게든지 내일은 구원하 마!"

살호는 혼자 슬렁거리며 이 를 악물었습니까.

(계속)

천문교실

문교부 편찬과 김 계 택

1. 천구(天球)

맑게 갠 밤 하늘에 은 모 락을 두면 뜻이 반짝거리는 별, 그 별은 다 하늘에 드리 붙은 것 같이 보이지요. 그 러나, 그 별들은 각각 거리가 다른 것입니다. 땅 위에서도 1km만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나무면, 어느 것이 멀고 어느 것이 가 까운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하늘에 있는 천체는 가장 가까운 달도 380,000 km나 되고 다른 별들은 그 몇 천 광, 몇만 광, 몇 억 광, 그 이상이나 되는 우주가 셀갠 듯 하지 못할만큼 먼 곳에 있으니까, 어느 것이 멀고 어느 것이 가까운가 알 수가 없고, 모두 하늘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일 것이 아닙니까? 하늘은 우주를 둘러싸고 둥근 것 같이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별이 날아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둥근 하늘을 천구(天球)라고 합니다.

이 천구와 별이 얼마나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약 6000이나 있고, 2천경이나 사 진기를 쓰면, 약 400억이라

는 볼까를만한 많은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0억이라는 수가 얼마나 큰 수인지 아시겠습니까? 4백 0이 열 개나 붙고, 이것을 1에서 세어 큰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 분이 대단히 빨리 셀 수 있다면 1분 안에 100을 셀 것입니다. 그렇



다고 하면 400 억을 세는데는 밥도 먹지 않고 밤낮을 조금도 쉬지 않고 세어도, 약 800 년이나 걸립니다. 얼마나 큰 수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별이 반짝거리는 하늘, 언제 보아도 그 하늘 그 모양이라고 생각하실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 9 시에 밖에 나가 하늘을 잘 보아 두었다가, 10 시에 다시 나와 하늘을 보십시오. 전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

을 것입니다. 먼저 8 시에 서쪽 산 위에 있던 별은 어디론지 없어져 버리고, 반 동쪽 담 위에 있던 별은 벌써 하늘 가운데 떠 있을 것입니다. 하늘 모양이 달라졌지요? 그렇습니다. 천구는 움직입니다. 천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나 달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지요. 그것이 모두 천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천구가 움직이

므로, 별이 서쪽으로 가고 동쪽에서 차때도 다른 별이 돌아 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구가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두는 까닭일까요?

2. 낮에는 별이

어디로 가나

천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립니다. 그것은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는 까닭입니다.

우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돈다지요? 그래서 천구가 도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 분! 기차를 타본 일이 있습니까? 기차 안이 앉아서 창 밖을 보면 기차가 움직이고 있으면서, 또 창 밖에서 있는 전구(電球)가 짐이 뭇로 달음질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때, 밤, 여러 별이 다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하늘이, 움직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임니다. 그러면 낮에는 별이 안 보일까요? 해가 저면 별이 나타나고, 해가 들으면 별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낮에는 별은 어디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별은 어디로 가지도 않고 어디에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은 해가 너무 밝아서, 그렇게 밝지 못한 별은 모두 잊어버려 감수하여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해가 그렇게 밝지 않으면 별이 보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거기에는 별빛이 잘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낮에는 밤이나 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밤이 되면 별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작인은 때로 그런 실험을 해 보여 줍니다. 그것은 "일식"이라고 해서, 달이 해와 지구 사이에 들어 가 때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달 2, 3 분 간이지만 하늘이 캄캄해지고 온 하늘이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해가 밝아서

우리가 볼 수 없거나 하늘이 캄캄해지면 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3. 북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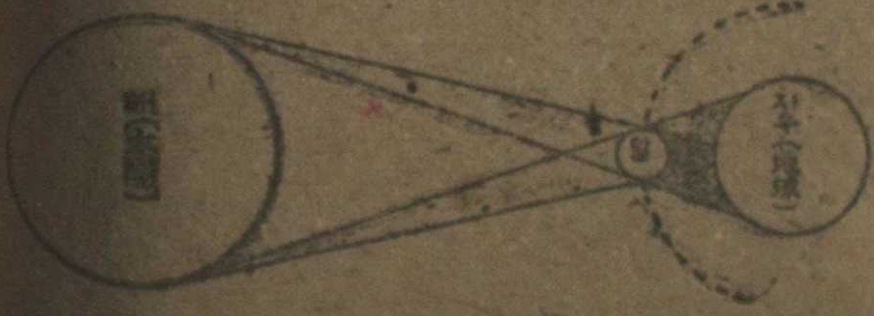
천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다는 것은 아셨지요. 그러나 천구는 할부로 도는 것을 아십니까. 또는 중심이 있고 그 시간도 정확하게 정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북극성"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북극성"이 중심이 되어서 천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북극성"은 북쪽으로 가면 북쪽 하늘에 높이 보이고, 남쪽으로 가면 밑에 있습니다. 적도(赤道) 이남에 내려 가면 아주 안 보입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상항히 높이 보입니다.

낮에 전 밤에, 밤에 나가서 북쪽 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면 별이 커다란 북자 보



양으로도 볼 수 있다. 일곱 개의 별을 회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곱 별은 머리 본도 아시겠지만, "북두칠성"입니다. 북극의 고요이며 북두칠성을 이어 그 거리를 다섯 굵 줄이 나아가면, 그 근방에서 북극에 보이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북극성"입니다. 북극에 가면 이 별이 머리 위에 보이며, 북극의 별이라는 뜻으로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북극성"을 가운데 두면, "북두칠성"의 반에 대해 W 자 모양의 다섯 개 별이 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은 "가시오메아"라고 하는 별입니다. 다섯 개 중 바깥에 있는 두 별을 작자 이어서, 가운데도 별이 두 개 있고 두대치는 별이 있었습니까. 그 점과 가운데 별을 이어 그 거리를 다섯 굵 줄이 나아가면 역시 "북극성"에 이르렀습니다.

"북두칠성", "가시오메아" 이 둘은 "북극성"을 쉽게 찾을 때 쓰이는, 매우 잘 보이는 별들입니다. (계속)



그림은 일식을 해의 해와 달과 지구의 위치



소년 소설
병정 구두
박철

생각할수록 몸서리가 치지고 정말 어질 줄을 모르도록 반갑고 하늘이라도 굽서 되어 오를 듯이 기쁨에 넘치던 날.

왜놈들이 저 소리 없이 이 나라를 비범범이 치면 강릉을 들고 누더기를 지고 어떤 아이들을 앞 세우고 떠나 가던 모양을 바라보고 수동이는 열이, 노마, 들이와 같이 손벽이 아프도록 치면서 인제는 수동이나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게 되고 인제는 배고픈 것도 비급도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거리마다 산재마치던 쌓인 물건을 수동이는 몇 번이나 입을 벌리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기가 신고 있는 누더구두 기운 운동화를 생각하고 길에 많이 떨어져 있는 병정 구두가 어떻게 신고 싶었는지 참말로 참을 수 없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노탕고 플그에한 밧이 하는 병정 구두가 마을에 꼭 들어 수동이는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병정 구두를 사달라도 막 줄랐다.

“어머니! 나 병정 구두 사 주옵.”

“병정 구두?”

“응 저가 내 발에 꼭 맞는 병정 구두가 있어, 응, 사줘” 수동이는 이렇게 막 졸랐으나 어머니는 돈이 없었다.

아버지가 정음으로 나가신 뒤에 어머니는 파느질 틈을 파시면서 그날 그날 오늘까지 살아 온 수동이다. 그러니 수동네는 창순네처럼 해방이 되던 이른날부터 일본 옷장이다. 일본 옷이다, 하는 것들을 많이 많이 사들이지 못했고, 어머니는 다만 어서어서 수동이 아버지만 하루 속히 돌아 오시기를 고대 하였다.

“병정 구두?”

어머니가 수동이 원함을 참람이나 바라보다가 또 한 번 물으시는데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글썽하였다.

“아아니, 아아니!”

수동이는 누구보다 어머니 마음도, 자기 집 사는 법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면서, 제일 먼저 어머니를 조른 것이 잘못이다 생각하고 급히 뛰어 나가버렸다. 문 밖을 막 나서려는 때 어머니가 급히,

“수동아 이미 오너라!”

하고 불렀다. 수동이는 얼핏 무슨 구제법을 하사떠나 말서미다가,

“네!”

조심히 어머니 앞으로 갔다.

“수동아! 병정 구두가 꼭 신고 싶으냐?”

어머니는 수동이 머리를 만져시며 아주 정갈하게 물으신다. 수동이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말 소리에 그만,

“어머니!”

하고 울이 비웠다.

어머니는 수동이 눈물을 닦아 주시며 이렇게 조용히 말하였다.

“수동아 일본 놈이 조선에 올 때와 같이 반송으로 가게 되지 않았니? 그러니 언제 우리 나라가 독립되면 일본 집이건 일본 물건이건 뭐든지 치마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에게는 주어 주게 된단다. 그러니 구두만이었니? 보자고 일본도 얻을 수 있게 되고

수준이 너도 공부하며 공부하고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참 아파서 앓았니? 안 그러면?”

수준이는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정말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장순애를 부러워했고 증연히 명정 구두신을 신고 싶어 했구나. 명정구두신까지 지금까지 답답하고 증연히 여러 가지 일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탁 트이는 것처럼 시원하였다.

“어머니! 잘못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어머니에게 사죄하였다.

“모두 몰라서 그랬지 우리 수준이가 언제 엄마를 굶었나?”

“그이면 어머니 언제 우리 나라 정부가 시우?”

“언제 끝 길서래지, 오랜 동안 우리 나라 정부를 세우려고 애쓰시던 어른들이 어떻게 하시려구.”

“어쨌든 정부가 섰으면...”

수준이는 여서 좋은 양복 입고 명정 구두신과 학교에 가서 해 주는 정부가 설 날을 기다리면서 자기도 빨리빨리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처 혼자 맹세하였다.

그러서 수준이는 애기만 공부하 눈이 파랗고 머리가 크고 코가 수준이 제 코보다 큰 무 배나 크게 키우고 자는 조선 사람보다 제 크다는 미국 영정들이 서울에 온

다는 날도 아침부터 일이 바쁘신 어머니를 모시고 경성역 앞으로 나갔다.

“일제는 미국 영정이 왔으니 정부가 섰다.”

어떻게도 백곡기를 휘둘러서 만세를 불렀든지 며칠 목성의 번하기까지 하였다.

그 때부터 꼭 일 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수준이가 기다리던 정부는 지금까지 식지 않았다.

아버지도 해방원지 두 달 만에 오셨으나 지금까지 일 자리가 없어 놓고 계시다.

아무리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다녔어도 일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도 수준이도 해방 되었을 때는 아버지만 오시면 집안 살림하는 걱정 없겠지, 더구나 해방이 되고 했으니 어서어서 아버지만 오시기를 고대했었다.

그러나 현실인지 수준이는

아버지가 오시고 해방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였다.

해방이 되자, 그 전에 수준부의 무슨 무장으로 다니던 장순애 아버지가 어디로인지 도망을 갔을 때,

“장순애 아버지는 도망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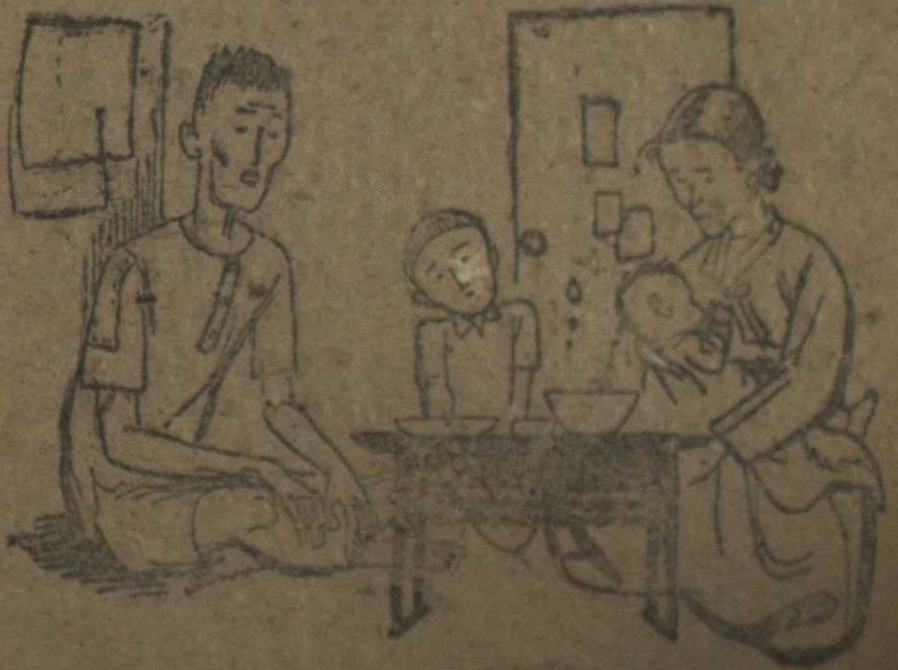
“장순애 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나보다.”

“그때그때 그랬으니까 해방했는데 달아났지.”

이렇게 동네 여자들은 무엇 때문에 장순애 아버지가 달아났는지도 모르고 그저 장순애가 얼굴이 빨개서 어떤 말을 모를 때까지 막 놀며 있었다.

그리고 장순애하고는 볼 여고로 하지 않았다. 수준이도 현실인지 장순애 아버지가 달아난 뒤부터는 정말 볼고 싶지 않았다.

대수가 장순애를 만날 때





소

조선의 농민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소라고 하였습니다. 조선 소는 색깔이 매우 좋고,

질문성이 좋고, 성질이 온순한데다가 딱 걸터 드잡고서 피가 잘 퍼지고 힘이 안 나니까, 농사 짓기에 제일 적합합니다. 또 그 고기는 맛이 좋아서 식용으로 이 데 이용할 것이 없으니 이 데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편에서 거의 세계 제일이라는 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들르는 소기 고기에 아주 알맞아서

필적부의 **축수(畜牛)**의 중이 팔관되고 일반 농민이 소를 사랑하는 마음도 대단합니다. 또한 소를 기르고 부리고 기르는 묘책을 가장 잘 알고 지켜내려 했으므로 **조선**은 세계에 보편적 **우축(育牛國)**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소는 다만 국내에서 쓰는 것 뿐이 아니라 어떤 어떤 나라 마다 수출의 목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외

국 **조선**에 있는 소의 수효는 약 1백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8, 10 개월 이상 크지 않음과 일부 농민들은 많은 소를 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 수는 점점 줄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소로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목적을 기우기에는 의미를 줄지는 농민들의 목 값이 싼다는 이 소에게도 잠깐만 마음을 써서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 **수동**이는 **장술**이가 수미 나라 정부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의 아들 같이 마음 한 구석에 거침직한 생각까지 들었던 **장술** 아버지도 **미국** 명정이 온 뒤부터는 언제 왔는지 또다시 그 권을 **주부**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 아첨과 조그만 서양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되자 **장술**이의 비기는 끝이만 동네 애들의 새로운 애깃거리였다.

“**장술**이가 그때는 저희 집은 **일본** 집이 세 집이나 있단다.”
 “**일본** 집이 세 집?”
 “애 한길 건너 건너 **일본**놈 많이 살던데 말야. 거기 저희 집이 세 채야.”
 “어썬, 그럼 우리 동네서 **장술**이가 짝 부자게.”
 “집만 셋씩 있으면 뭐 부자가, 그까진 **일본** 집은 이제 우리 나라 정부가 서면 가난한 사람들을 내버려둔다.”

수동이가 열매 섰다가 아주 자신있게 어머니에게서 들은 얘기를 하였다.

지금까지 듣고 있던 **장술**을 모두 처음 들은 얘기라는 뜻이 **수동**이 일곱만 쳐다보았다.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어서 **장술**이처럼 부자만 **일본** 집을 차지하나모야 생각했고 **조선**에서 온 돈 많은 사람들만 들게 되나모야 생각했다.

“**수동**이 말이 맞아. 수미 정부 그때는 우리 나라가 되면 수미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호강을 한대. 그래서 우리 정부 공장에서 막 싸운데……”

수동이 열매 앉았던 **노마**가 제가 더 단다는 뜻이 말했다.

노마 형이 다니면 공장은 해방이 되자. **노마** 형과 같이 일하는 직공들이 모여서 이 데가 하면 잘 해 나갈까 하는 하여 부단 동안이나 합장을

잘 자지도 못하고 잤은 고생을 해 가면서, 넉넉히 직공들 끼터만도 해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노마** 형-공장은 새로 주인이 들어 왔다. 지금까지 일 잘 하던 직공들을 하나 둘씩 내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공장은 **수동**이 어떻게 일 제하든 하는지 원하니, 썩어, 썩어 들어 들어 나중에는 직공들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을 모고 **노마** 형은 새로운 주인과 몇 번이나 싸웠는지 모른다. 그리고 **노마** 형이 몇 번이나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 온 것을 **노마** **수동**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주인과 싸웠다 하더라도 **노마** 형이 또 다른 직공들은 애초 도 없이 나중에는 **노마** 몇몇 직공들은 정역 이만 인고를 받고 정부 가던 날 **노마**가 어떻게 될을 되고 우는게 **수동**



"할 수 없지
할 수 없어. 그
저 조선놈은 말
하듯만 되었소
니....."

그러나 수동
이는 선배들지
어머니의 지 한
숨을 기억하 없
애 드리고, 아미
지의 말처럼 보
선은 그렇게까
지는 되지 않스
려니 끝까지 믿
고 있었다.

"어서어서 수
동! 나라 정부가
서야 해!"

"아버지카하
고 조선하고 이

고 무슨 일을 하든지 '부족'이
하였다.

그러고 인제는 정부가 서
기라도 행정 부두나 풍하고도
일 없고 국민 학교만 졸업하
면 노마 될처럼 풍장해 가이
기마한 기계들 돌리고 최
악 짝는 기를 풍루 할 것
지 혼자 걱정했다. 새 나라!
새 나라에는 무엇보다 기
풍루 많이란 사람과 노마 될
처럼 기계를 돌리며 잘고 일
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할
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수동이는 하루 속히
정부 서기만 고대해서 잠고대
해도 못할 이런 소리를 하였
다.

"엄마! 정부가 언제 서우"
"노마야, 정이야, 어서 어서
힘을 합치자!"

"중학교 들어, 기실 풍루
된다."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나 수
동이 잠고대를 끌고있었다.

"신상고 기진 바뀌었어"
하고 송일거리면서 미를지
하게 수동이 팔자는 일들을
하러보며 웃으셨다.

— 끝 —

가슴이 아픈 것을 꼭 삼았었
다.

그날 수동이가 생각하고
하마고 기마리는 정부는, 한
시도 이상은 자꾸자꾸 이렇
게 될하여 갔다.

수동이가 생각하기에도 힘
침 장순이 같은 집안 애절치
일 잘 살게 되어 가고 노마
카나 수동이 자기네 집은 미
운이 없가부나, 될 때쯤 할
수만 없어서 걱정이 되니 아
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눈
에 보이기만큼 가난해 갔다.

일부 가난 갈수록 사는 것
같은 것만 마음을 느끼고 초
등학교 입학하시고 마정하시던
것이었고 서느듯 바듯처럼 건
물들은 서지는데 수동이는
슬펐다.

일부가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죽 새 나라가, 우리 나라
정부를 세우, 우리 위해서
악속했다."

"그 악속대로 꼭 해야 할
데....."

(장순이란 애 보고 노마, 열
이, 들이, 모두 수동이처럼
굳게굳게 믿었고, 날이 갈수록
더 더욱 원해서서 언제나 서
로서도 재미있는 애기도 하

한글 참고서로 제법
"들리기 쉬운 말"

소학생, 중학생 모두 환영

올해 자 남의 중등 학교에서
입학 도서에 여러 문장을 넣
것을 보아도, 모두 험잡하기
쉬운 말을 바로 고쳐하는, 첫
이었다. 한글 맞춤법을 철저히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한다. 그
런데 맞춤법에는 뜻을 들리기
쉬운 말이 섞여 있으므로 이것
을 아주 익숙하게 알아 두어야
한다. "학생 조선어 사본"을
꼭 보아야 이 연필 선정이 되어
문을 취하여 제법 참고서 "들
리기 쉬운말"만 정한 것으로,
한글 맞춤법을 한 문 없이 알
게 마련이다.

책상 위에 한 권씩 놓고서
두기로 하자!

경가 31 원 이 연필 선정. (과
목자에서 파는 중)



2. 칠공 주요점

의삼촌은 그들을 어떤 처하실
로 일보하셨습니다. 저하실 덕은
유머로 비어 있는데 그 답 뒤에는
불이 하나 가득 차 있습니다.

"아, 덕이는 수족관(水族館)이
다"라고 장로가 우쿠보야로 먼저
설명했습니다.

"아니지, 내가 잘못 알았나"하
고 의삼촌이 설명하셨습니다. "저
기 저 설명판을 읽어 보아라."

설명판에는 아래와 같이 써
여 있습니다.

(목욕에 쓰는 물이 배어지는
곳) 의삼촌은

"여기 잠깐 기다려도 되거라.
물은 구경이 있을 때니, 네 가서
여기 저이 볼 줄 알아 보고 올 때
니." 하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기다리느라니, 갑자기 물
이 속의 물이 울렁울렁 파르
가 생기더니 그들은 앞에는 무
엇인지 시뻘건 덩어리가 무우
같이 떠 있습니다.

"저게 무엇인가?"

"응, 고깃덩이다. 쇠고깃덩이"
하고 우민이 손뼉을 쳤다.

이때 뿔 한 컷이 위에서
부터 속 하이부를 때 때로 으르
니 그 고깃덩이를 놓을 줄고 다
시 북을 휘두르러 갔습니다. 그
뒤에 뿔 한 컷이 드 라라 때
때 으다가 고기가 벌써 없었으
므로 낙망하여 뿔뿔 떼어져 날
았습니다. 이때 밖에 나갔던 의삼
촌이 도로 들어 오면서,

"아, 내가 특별 고집을 해서
뿔금이 고깃덩이 한 개를 걸로

로 덕이 퍼줬단나. 으우 세 시가
되면 그때가 이 뿔금 걸실 시간
이라 너희들끼리 다른 구경판이
있을 때에 조용히 구경하라고 자
금 특별히 고깃덩이를 던져보
고 걸을 것이다. 으우 세 시에 다
시 와서 이 위에서 고깃덩이를
던지는 구경을 또 하도록 했다.
그때 우민이 고깃덩이를 던져
보도록 고집했다."

"응, 내가 뿔 때야"하고 장로
가 대답했습니다.

"아, 아, 으우 세 으우 세 시에
와서 오자, 뿔금이 뿔뿔이 퍼나,
우민이 던져봐!"

의삼촌은 올라 와 보나 곳가로
뿔금이 여파 마리가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한 줄도 볼 속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 물 속으로 한 줄이 잘까?"
하고 우민이 물뿔을 달아내면 의
삼촌이

"덕을 읽어 없으니깐 안 물어
가져. 뿔 뿔은 자시당할 눈과 실
손이 뿔인 수은 나이에 사든 징
송이처럼 그것들로 뿔 뿔은 읽어
한번라. 고기가 잘라 덕이 퍼
어 가고 뿔 부를 덕이는 뿔뿔
알아서 뿔을 자기를 잘라일단나.
이 뿔 뿔을 덕이로 안 자지
로 뿔을, 한 컷로 기어 으르기로
알았다. 자제해 오아라. 저 뿔 뿔
뿔뿔이 저렇게 뿔이 걸지만, 그
뿔이덕이로 뿔이 수북하게 걸네!
그렇게 하우라 덕이퍼를 한을 잘
어라로 덕이퍼지게 걸고 뿔 으르
세라로 뿔 걸자라 으르가 나지
알아서 물게 걸은 걸 정아 덕을
뿔뿔 뿔로 가판기만 으르 한 나
게 걸어 가서 뿔뿔이를 덕이퍼
잘라 덕는다."

"뿔 뿔은 뿔이 하에서 잘 걸로
라." 하고 이모가 말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그 힘이 원
이유가 정말로 어디 있는지 아는
가?"

아무도 일흔 때를 못했습니
다. 유리가

"날 지어 하산 일이 나서 그렇
지 부어."

"그래도 왜 하필 하산 일이 날
타?"

"눈이 하아어라 눈 빛과 초파
를 시키노라도 그렇지." 하고 어
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것을 소위
보오색이라고 하는 거야. 파른
동물들, 심지어 벌레들까지도
이 보오색이라는 것을 가렸어.

자기가 살고 있는 수위 환경의
빛깔과 먼지 빛깔이 비슷하기 때
문에 침수에게 일흔 들기지를 잡
아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야. 북쪽 물은 그렇지 못하지만

집을 잡는 이 보오색에 아주
인수가 피어서 겨울에는 힘이 최
이 되고 여름에는 힘이 최적이
로 변하는 것도 있던 법이야."

"응, 그이러한 원 리는 눈 위에
서 사는 짐승이니까 별로 하산
군." 하고 홍호도 인제 대답했습
니다.

"그렇지만, 꼭 마찬가지 이유
로 사자는 사막에 사는 짐승이
피어서 힘이 보오 빛처럼 누수
잖."



새로 된 교과서

서울 효창 국민 학교

청파를 푸른 숲 어린 소나무
나날이 자라는 활거운 동산
비바람 속에서 굳세게 크는
저 들의 기상은 우리의 기상
씩씩하다 효창 동무
슬기롭다 효창 동무

흐르는 한강은 언제나 새롭
나날이 배우는 새로운 공부
잠시도 안 쉬고 앞으로 가는
저 들의 정신은 우리의 정신
씩씩하다 효창 동무
슬기롭다 효창 동무

(은 서 중 지음)

"그럼이럴 공의 요란을 의 지
제 세라파수?"

"북파, 내가 약간 설명시켜
는데. 요가 세라만 것이 원공의
말이 되는 줄기 끝에서는 온 보
음이 끝난 법이거든. 물기는 힘
이 파장기 때문에 일흔 번째 때
는 고로 물결이 끝까지 잡아
오려고 슬금슬금 기어 가면 발
닥에 힘이 돌아서 소파로 아니
나고 힘이 보 일음이나 끝과 같
이 피어서 보이지도 잡으려
야만일지, 고로이 요가 세라공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물결이 보
오고 일흔 줄 속으로 밀려
어 들어 도망을 하거든."

"아이요 세라했다."

"그러나 공적한 원 공세전 보
방법이 있지. 그놈이 물결 잡아
먹으며 잘 적에는 그 세라만 보
를 앞받로 딱 가라고 가거든."

"예게, 그럼 세 말로 읽어 가
나?" 하고 홍호가 대답하듯 웃었
습니다.

"그럼, 두 말로만도 읽는게."

(17 페이지에서 계속)

입선 2 제 비

공심(空心)은 제비가 전
임이 비편가와 물이 얼려한
다.

입선 3 저녁 노래

저녁은 배를 잃어 비비나,
말을 잃습니니다.

입선 4 끝이 없다면

하늘은 무엇인가? 사람은
왜 하늘만 못함가? 저 좌우
군은 하늘을 아야 조상으로
학의라.

입선 5 비둘기

잃어 비편 명기는 비둘기
드렸구나.

입선 6 아가 토끼

아가의 세지에는 엄마 밖

에 없다. 엄마를 담은 일,
얼마나 행복인가.

입선 7 소

소는 아버지의 빛이다. 비
둘적하고 무지편한 빛이다.

입선 8 개구리

개구리 울음은 합창(合唱)
이 아니라 합성(賦聲)일 것
이다. —끝—

이순신 장군

박태일 지음 * 김기환 그림

장군은 천군에 영을 내리어, 곧 출동(出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서 하였다.

한낮이 지나고, 해가 저물기운 때, 과연, 왜선 열 세 척이 수리 배를 항하여 들어온다. 수리가 곧, 돛을 감고, 북 치며 내달으니, 왜선이 황망히 뺨거리를 들피어 달아난다. 우리는 멀리 바다 밑에까지, 찾아 치려고 돌아왔다.

그러나, 장군은, 저어 반드지 밤에 다시 올 것을 짐작하고, 더욱, 경계(警戒)를 엄히 하라 분부를 내렸다.

아니나 다를까, 밤 들어, 각의 무리가 다시 배를 끌고 들어와, 어지머이 총을 쏘으며 위협을 보인다. 장군은, 군사들로 마구 총을 쏘게 하였다.

왜저은, 증연히 범(犯)할 수 없는 것은 깨닫고, 다시 그대도 물러가 버렸다.

때에, 우리 수군은, 형세 고만하지가 비탈이 없었다. 전선이 타고는, 잔지 일 두 척이 남았을 판, 군사들은 왜적에게 참혹하게 치한 줄이라, 도무 겁날만 잔쪽, 집어 먹고 있다. 무기(軍器)도 번번치가 못짜더니와, 양식조

차, 넉넉할 턱이 없다.

그러나, 때는 늦은 가을철 —, 수리는 각각(定期)으로 딱쳐 오는데, 군사들은 틈틈이 두들 옷가지조차 도무지 마련이 없다.

장군이 속으로 근심하기를 미처않더니, 하루는, 각지 매서 얼얼 모여 들어, 포구째 대어 있는 피란선(避亂船)이, 이연잔, 수백 척이나 되는 것을 보고, 장군은, 그들에게,

“지금, 저선익 은 바다에 말려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 하더 여기 머물러 있는나?”

하고 물었다.

백성들이 도무 대답할다.

“너희들은, 오직, 사포 한문을 받고,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장군은 다시 말하였다.

“너희들이 만약, 네가 이르는 데로 한다면, 살아날 길이 있으더니와, 그렇지 못하면 도무 죽을, 뱀뱀은 없으리라.”
“무슨 분부든지 들을고

있습니다. 뭐 감히 상을 기억하오더까?”

“그럼 자네의 내 말을 듣거라! 지금, 군사들이 모두 힘껏고, 굶수며어, 죽을 계경에 이르러 있는데, 이더고서, 이제, 식량을 먹을 조리가 있겠느냐? 너희들에게, 만약, 여덟 톤이나, 남은 양식이 있거든, 무더, 이 군사들을 구원하여 주고, 그러면, 자양을 막을 것은 우리가 담당할 것이니, 너희들도, 이쁘소 속음을 면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듣자 피란민(避亂民)들은, 서로 마주어, 총과 창을 내어 놓았다. 잠깐 사이씩 한 점이 좋았다.

이로서, 군사들은 다시 총과 창을 한하여도 좋았고, 군중(軍中)에는 양식이 적지 않게 되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에게, 다시 동계사를 제수하여 놓고도, 도무저 바음이 놓이지 않았다.

취하, 우리 명선의 수효는 적고, 저의 명제는 크다. 일



순실 장군이 아무도 고금(古金)이라 하더라도, 이때 너무나 기울어진 형세를 어떻게 할 것이랴?

이때 하여, 조정에서는, 장군에게, 벼를 버리고 물벼룩을 타 하 여수라는 글자를 세웠다. 수취의 어미 장수들로 손근히 그려기를 바란다.

그러나, 장군은 상제(狀啓)를 올려서, 팔계 밭은 바를 하하였다.

"일진년(正眞年)으로부터 이시까지, 오륙 년 간격, 세적이 감히 양호(兩湖)——전라 도와 순실 도)를 바도 된(罷)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수미 수군이 그 징계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라. 저를, 신(臣)이 전선 일 주 책을 가졌으니, 속을 힘을 다 하여 여수면, 오�히 될 수 있는 일이온데, 이제 만약, 수군을 전제(全廢)하여 버리면, 저저손, 받드시, 양것을 전쟁(天災)으로 알아, 곧, 전라 도 서편을 몰아서 한강(漢江)에까지 이룰 것이니, 이제, 무엇저 할 소리랴? 우라의 전선이, 비록, 수호는 적으나, 신(臣)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적이, 감히, 수미를 업신여기지는 못하오리다."

조정에서는, 장군의, 아랑곳 않은 실념(備念)과 장한 처기(愈氣)에 감탄(感嘆)하여 바기를 마지않으며, 이 말을 전하여 들은 군사와 백성들도, 다 함께 장군을 우리며, 마음이 한층 더 든든함을 느꼈다. —계속—

고민 속담



가랑잎이 밟힐터러 바
시락거리다고 한다

사람은 인제나 자기 중심이 되기 귀우며, 그것이 뜨가 지나면 양심까지 마비되 미된다. 대방 귀우에는 골라못하던 원인과 민족반역자가 요즈음에는 활개를 쳐고 다니며, 뜨박이 된정한 백작자를 때려도, 민족 반역자라고까지 하게 되었다.



뉘 풀에 죽어 굶는지
밥이 굶는지 모르겠다

임시 정부가 서전 말전, 국력이야 피진 말전, 남이야 굶어 죽은 말전, 저만 때우르코 겨만 잘 살면 그만이지, 남의 사정야 알아 아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점 없코, 수십 백을 사람의 멧장을 밟할때 쓰는 말.



우선 먹기는 꽃김이
많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눈 앞의 일 따미 모르마는 말. 지금 달조선 지식이는 어디서 어떻게 가져 왔는지, 조종이나 뛰미 현실 불건물이 커지고 있다. 땅강을 쓸을피도 모르나, 그 때선 우미는 만조이 귀한 만으로 갖아야 한다는 말을 잊어버는 안건다.



굶어 부스럼

그미 때만치도 많은 것을 국연히 굶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코 모실려마는 말이니, 무슨 일애고 할미 없는 간담을 아거우, 저누르케 억압을 하며 뜨박이 큰 일이 벌어져가 영마는 말이다.

(그림·김 의환)

어린이 새소식

교실 없어 공부 못하는 동무

경기도만 3 만 명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이때, 서울 시내에서는 1만 여 명의 아동을 교사 부족으로 3부제로 수용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기 도내의 실정을 보면 도내 공 사립국민 학교 수가 4백 2 교로서 교실 수는 모두 2천 6백 21이라는데, 이를 때 교실 70 명 정원으로 하여 38만 3천 여 명 밖에 수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금년도 졸업생 수는 2만 4천 45 명이고, 올해 입학하여야 할 아동은 3만 1천 3백 여 명이라고 하니 결국 3 만 여 명이 입학을 못하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3부제로 한다면 아동 교육에 큰 지장을 끼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각급 의무 교육 실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편 선생님도 매우 부족하다고 하니, 우리 나라 어린이를 위하여 현실 할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조각조각 부서져 가는

남산의 "도리이"

명랑하게도 새봄날이 조선 13도 일대의 피와 땅을 밟아 먹고 이 땅에서 물러간 자 오랜 이 때, 아직 남산 꼭대기에는 그 보기 싫고 소름이 끼치는 "도리이" (鳥居)와 소위 "판계 대사(官幣大計) 조선 신궁(朝鮮 神宮)"이라고 쓴 비석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몹시도 눈에 거슬리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불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치워 버려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 가던 중 7월 초하루부터 이것을 때려 부수는 공사가 당국의 손으로 시작되고 있으니 참 시원스러운 일이다. 해방 직후에 없애 버려야 할 것을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내버려 두었던지, 좀 이상한 생각도 드나 보기 좋게 최후의 날에 맞아 쓰러져 가는 굴적굴적한 회상

암(花崗岩)을 보고 민족의 피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조선 사람의 땅과 피와 발자국 해앗아 가면 일본 장로의 근거지(根據地)의 최후의 더러운 모양이다. 우리는 이것으로써 만족하지 말고 힘을 길러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더러운 물건이 서게 않도록 하자.

새로 생긴 중학교

경기 도의 김포(金浦) 장안(長安) 고양(高陽) 양평(楊平) 4 군에서는 각각 그 동안 초급 중학 설립을 준비 중이었는데, 지난 24 일 부터 당국의 인가가 나와 정도를 모듬하기로 되었다 한다.

키가 6 척 7 척이나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조선서 제일 힘이 세다고 자랑

필강한 노 환수(盧煥于)라는 사람이 경남 함양(咸陽)에서 서울에 올라 왔다. 일찌기 백두산(白頭山)과 부귀(金富貴)를 상당히 보고 힘이 센 역사가 있었으나, 이번에 상경한 노 환수씨의 책적에는 미치지 못했었다. 키가 6 척 7 촌이고, 무게가 330 톤인데, 일본 가서 약 9 년 동안 함양산(咸陽山)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서쪽계에 정장한 이름을 달았다. 밥은 한 끼에 되 가듯씩 먹어도 부족하다고 하며 손 하얗한 데도 할자 가 웃이 필라고 하며 일어나든지 짐작할 수가 있다. 그는 책상이 되자 고국에 돌아와 부흥에서 농사를 할 작정이었으나 아무런 데도 조선의 역도(力道)를 위해서 더욱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서울로 올라 왔다고 한다.

새로 꾸민 박물관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던 경복궁 안에 있는 국립 박물관은 6월 6 일부터 다시 열게 되었으며, 면면(曄曄)도 세로운 것을 갖추어 편제를 모두 고쳐 꾸미는 중인데, 저년엔 개성 부근 법당방(法堂坊)에서 발굴할 때, 고대도 그려 온 고려 시대의 고분 벽화(土塲壁 7월 초 20페이지를 보시라) 세 폭과, 또 같은 고려 시대의 절이었던 송남 벽산 굴 대덕 면수역사(送南 壁山 窟 大德 面 修德寺)에 있는 네 폭 그림중, 지금 남아 있는 고려 시대의 그림으로 구경하기 어려운 것들을 일한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였다. 그림은 비천(飛天), 수초(水草)야초(野草), 금룡(金龍)등, 여러 가지인데, 그 제작이 모두 뛰어난게 좋은 것이라고 하며, 그것을 묘사(描寫)하는 때는 참 박물관원 일 선(林泉)씨가 오랜 시간을 두고 수고 했다고 한다.

5 년만에 움직이는

장항 제련소

남조선에 단지 하나 밖에 없
는 장항 제련소(長項鍊所)는
5 년만에 도마시 기준까지 깊은
연구를 통하여 움직이기 시작했
다. 즉 지난 6 월 25 일 장항 제
련소에는 장항 광석이 많이 모일
자는데, 공장쪽에 물을 넣는 식
이 정해져 거둔적이었는데, 이 공
장에는 앞으로 마달이 70 톤 가
량의 장석을 제련할 것이라고 한
다. 그렇게 되면 장항에 있는 일
광(日光) 함안(咸安) 고성(固城)
의 각 광산과, 전남에 있는 순천
(順天)광산 등에서 나오는 장석
을 물론이요, 남조선 각지에서
나오는 철광석을 전부 제련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아
은 이속도 되었지만 첫째 제련할
곳이 없어서 장석을 파 내지 않
고 있던 광산에서도 파지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우

편 나라의 공업계를 위하여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할
때 우리 정부를 세워 훌륭한 제
련소를 몇 군데 더 세워야 할 것
이다.

장마에 무너진

서울 동대문

이런 장마에 서울 동대문 한 구
푹이 무너졌다. 물레들은 4백
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인
근 조선 문화의 자취를 남기고
있는 뜻 깊은 고적(古蹟)의 하나
이다. 서울을 비롯하여 각 지방
에 남아 있는 귀중한 고적(古蹟)
유물(遺物)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물모지 참았던 바닷물로 차차 무
너지기 시작할 때가 많다고 한다.
지상은 고사하고라도 서울 시가
에 있는 것만도 큰 고적이 40 여
군데나 되는데, 이것들은 하루하
리 손질을 하지 않으면 멀지않아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한

다. 그 중에서도 경복궁(景福宮)
근전전(勤政殿), 경회루(景會樓)
광화, 남대문까지 지붕으로부터
빛물이 스며 들어 세 위임한 상
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1 등에 밝힌 중학생 논문

조선의 나이편 중학생으로서
지난 5 월에 미국 뉴욕 주전 잡
지 "미지메스 에듀케이션 월드"
사에서 모집한 부기에 관한 헌상
에 응하여, 전 어 명의 미국 사람
들이 응모한 가운데 그들을 골라
치고, 명망히 1 등에 뽑혔다. 그
중학생은 헌재 정기 상설 제 4
년생으로 이 순학이라는 소년인
데, 표상장과 상금이 며칠 전에
왔다고 한다.

★ 바로 잡기 ★

49 호(7 월호) 34 페이지 1단말
남 북 조선의 인구 수가운데 19
47년도 38 이남 16, 908, 043은
19, 908, 043, 8 이후 귀화 동포
수는 8·15 이후 귀환 동포 수가
맞습니다.

애독자 위안 상타기

바른 대답과 당선자 발표

첫째 문제

언덕이는 직례도 마
음이 곧아야 하고 풀
레로는 삼출성이 있어
안 하고, 세피로는 갈
임없이 곧추를 해야
하며, 그리고 눈 희망
을 가려야 합니다.

둘째 문제

18 세.

1. 등,

남 정숙(서울 중합교 6년)
신 상호(서울 삼정교 3년)
손 태환(수원 신광교 4년)

양 경민(경주 석보교)
서 주립(인천 민수교 3년)

출 풀

노 경순(서울 삼정교 4년)
서 수동(경기 안양교 6년)
서 순성(서울 보통 2가)
이 주희(서울 무학교 6년)
김 중희(서울 예동교 6년)
윤 승원(서울 덕수교 6년)
임 광성(서울 당수동 189)
홍 영수(서울 무학교 6년)
사 수원(사대 부속교 5년)
하 현성(사대 부속교 5년)
정 태용(서울 조계교 6년)
박 승원(서울 일신교 4년)
이 인호(경기 안양교 5년)
김 정순(경기 안양교 5년)
김 금순(경기 안양교 5년)
고 기택(서울 광산교 8년)

유 민실(서울 수송교 4년)
김 지상(서울 덕파교 4년)
김 순일(서울 덕파교 6년)
성 도경(서울 용산교 3년)
이 인호(서울 광산교 5년)
최 문식(부산 동광교 6년)
이 향근(서울 조계교 6년)
안 준옥(서울 중합교 5년)
윤 자영(서울 덕파교 5년)
박 영호(서울 조계교 6년)
최 현원(경주 중화교 1년)
윤 상민(서울 청주교 6년)
김 현길(서울 덕파교 3년)
주 석철(계성 민일교 6년)
유 재철(수원 신광교 4년)
송 영문(수원 신광교 4년)
윤 말일(수원 신광교 4년)
유 재철(계성 원정교 4년)
김 영희(계성 중정교 5년)

권 정숙(계성 중정교 6년)
박 금옥(계성 중정교 6년)
안 장식(서울 조광교 5년)
김 상용(서울 중정교 6년)
이 재홍(사대 부속교 6년)
서 재홍(사대 부속교)
정 성진(서울 중합교 4719)
구 성현(사대 부속교 6년)
김 중현(서울 정은교 6년)
권 장관(과수 보라교 5년)
명 정섭(서울 삼정교)
김 금문(서울 삼정교 6년)
이 재길(영동교로 5년)
최 정숙(경주 중앙교 4년)
김 우도(계성 지정 134회4)
(바로 맞춘 분이 많았으
므로 세비를 풀지 못하였
으며 선의 빠진 분은 변
리 알려드립니다. 권정일)



(문) 칙칙박사님 편히 쉬셨습니까? 한 가지만 물겠습니다. 소머리가 웃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르실지요. (서울 중교로 아송)

(답) 네 책상 위에는 뭘 그려 놓았대, 모름 이가 있나? 칙칙박사의 친구 "깔깔박사"도 그렇거니와 사건의 웃는 얼굴들은 소머리는 나지 않지 않나? (칙칙박사)

(문) 칙칙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문제 하나 묻겠습니다. 배제 추수는 넘어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 방송로 장갑순)

(답) 사실은 없는 것 같아보는데 눈을 껌 안에 넣어 울어 울음을 황에

안 건다네. (칙칙박사)
(문) 칙칙박사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아무런 칙칙박사라도 이가야 모르실 것입니까. 칙칙박사 수첩 밑은 어디 있거나 됩니까? 인일이 좋아서 세지는 마의요. (서울 방송로 장갑순)

(답) 칙칙 박사의 집에 하도 심심하기때 내 수첩과 "생활박사" 수첩을 써서 보거나, 내 것이 두 개가 모자라, 거짓말 할거면 "생활박사"의 수첩을 써서 보게. (칙칙박사)

(문) 어떠한 문제 두 가지만 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괴모란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가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서울 정교로 이철우)

(답) 첫째는 기괴모란 것이 제일 "기괴모란"라고, 다음은 제일 맛있는 음식. (칙칙박사)

○만 원?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일남 "극장으로 뭉개이의 모험 구경 잘하?"
계동 "일요일에는 만원이야는게....."

일남 "이 광고, 만 원이면 모며 때도 못 끌어 가잖아. 어떤 30 원인가 했대더마."

계동 "아나, 뭐 저어 물어 갈 수 없단 말야. (서울 일신교 4년 황 등준)

○꼭 있는 버섯

아우 "선니, 버섯에는 꼭 이 있는 것이 있다보네. 그걸 어떻게 알수?"
선니 "그거야 적어 보면 알지. (수원 이만근)



(크로스워드 풀기 48 호 대답)

국	민	학	교		구	기
가	성			황	소	진
	강	마	천		학	
습	관		공	등	생	황
사		웃	장		삼	주
형	알	강		미	죽	등
	진		데		어	편
	의	농	들		교	
가	닌		보		본	석

이건 참심상

이런 가는 사람은 이렇게

자면서 이를 물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게 하려면 잘 적게 카재니 깨끗한 손수건을 입에 물고 가 보십시오. 대개 하룻밤이나 입을살만 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가 마시 갈기 시작할 때에 마시 할편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치게 됩니다.

비에 물이 젖었을 때

우산이나 우마가 없어서 비에 젖고 집해 돌아왔을 때에는 몸 젖은 옷을 벗고 머른 수건으로 물이 휘건휘건 할 때까지 문지르십시오. 비를 맞고 마닐 때에는 운동을 하거나 체온(體溫)이 그어 식지는 않으나, 가만히 있으면 체온이 식어서 감기가 올기 쉽습니다.



말국질이 날 때에는

말국질이 일어 나기 곤난 할 때에 모뎀 물을 자꾸 마

사기도 하고, 길게 숨을 쉬
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낮은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을 아주 조급한
식으로 하는 1, 2 분 한때
고쳐서 됩니다. 그러고 그제
지 숨겨진 한 잔 이 그렇게
되 보십시오.

사진을 꽃꽂이 붙여라

사진을 사진첩에 꽃꽂이
붙이는 방법을 아십니까?
사진 뒤 천구멍 출점을 하면
안됩니다. 천구멍 출점을 해
서 붙이면 사진이 누그러져
오기 쉽게 됩니다. 그림과 같
이 꽃꽂이 출점을 해서 붙이
십시오. 붙인 뒤엔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 주면 더욱
튼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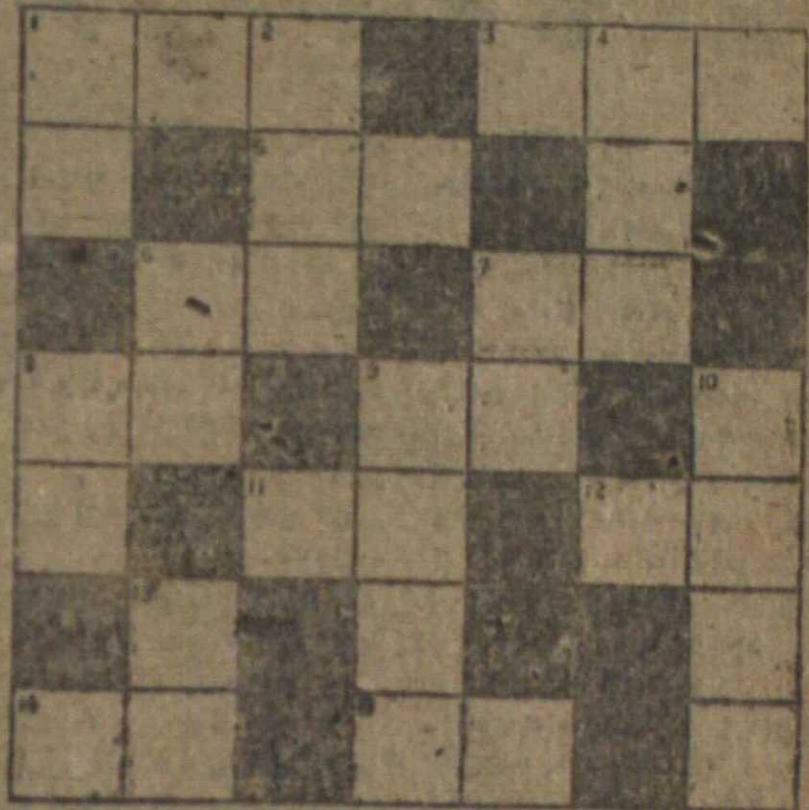


신문을 오래 쓰는 법

신문을 오래 쓰는 법도 아
세요 그냥 쓰면 힘이 잘 타
워서 쉬 못 쓰게 됩니다. 이
것을 오래 쓰도록 하자면 사
유가 끝난 후 시간 공백 때가
유가 마다 말려서 쓰기 시작
하면 오래도록 쓸 수가 있습
니다. 윗저 말로 꼭 실행해
보십시오.

★ 크로스워드 풀기 ★

새 문제



[세로로 주는 열쇠]

- ①옛날 조선 왕조 이름이 있던
간을 원을 원을 이 세나라를
합쳐서 부르던 말.
- ②외국에 가서 성을 권하는
직업을 가리키는 말.
- ③명국이 처음으로 일본 장교(將
校)에 맞서던 무거운 무기를
"총"이다.
- ④외국과 통하다.
- ⑤높은 절벽에서 맑은 물이 계속
떨어 떨어지는 것.
- ⑥과일이 열리는 나무.
- ⑦남자와 여자가 그 열리에 있어
서 눈이 내리는 장면이 없이 즉
관하는 것을 말할 때.
- ⑧역성 절벽에서 이적을 기점으로 가
고 한 나라의 주권이 인정에
의하여 정체를 하는 주의.
- ⑨물결이 서늘이 있는 곳.

[가로로 주는 열쇠]

- ①서고 조선을 남북으로 갈라 놓
고 있는 선.
- ②이러 조선 말년에 일본과 그
밖에 여러 나라들이 통상을 하
려고 할 때 한국 주의(韓國主
義)를 고집한 것으로 유명한
은.
- ③학교에서 공부하는 말.
- ④빙고치는 사면.
- ⑤북한약을 장제할 명왕.
- ⑥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
- ⑦치유를 받고 물을 먹는 그릇.
- ⑧여자가 죽어 죽는 언필만한
말.
- ⑨필라 남도 도일이 있는 곳.
- ⑩세, 정승, 종그기들의 공부에서
필가 나온 물건.
- ⑪알에 올라 가는 것.
(여말은 마승 조에)



▲선생님 인사 여쭙겠습니다. 저는 "소학생"을 다달이 읽고 있으나, 글을 쓸 보배기는 이별이 서슴입니다. "기상에 쓰는 말"은 지식이 높고 재치가 있어서 자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소식 또는 외국의 소식을 알리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급부의 용동이 많이 내렸으니 그리 아십시오. (서울 이틀 안 쓴 이)

▲이 나라의 싸이로 꽃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잡지 "소학생"을 만들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일전에 보내 주신 잡지 "소학생"은 잘 받았습니니다. "소학생"은 우리 어린이의 영원한 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친 이야기 들 더 많이 내 주실 수 없습니까? 선생님을 구강으시지만 송도의 함께 월급 40 원은 보내오니 "소학생" 6 월지를 한 권 보내시길 바라며, 끝으로 선생님들의 건강을 빕니다. (수원 군 태장면 의 진선)

▲40 원은 받았습니니다. 6 월지는 남은 것이 한 부도 없으므로 7 월지로 대신 보내도록 하겠사오니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아침" 선생님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학생"이 무엇보다 좋은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저의 부탁은 "소학생"에 실려 있는 그림 속담을 한 권으로 모

아서 책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급까지 발명원 기제에 대해서 꼭꼭꼭 "소학생"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만장교 6년 2학기 덕)

▲안녕들 하십니까? "소학생" 다음 책은 값이 얼마입니까? 팔려 알려 주십시오. (서울 일신교 4의 2안·현현)
스망분값은 40 원씩 하였습니다. (기자)

▲"소학생"을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 얼마나 고맙하십니까? 이번 47 호에 관한 바로 쓰기 문제가 또 나온 것을 보고 제 한가했습니다. 이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많이 내 주시면 집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 호부터 30 호까지는 합본이 나왔는데, 31 호부터 44 호까지는 언제 합본이 나올까? 좀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서울 문암로 3의 2 하 풍식)

수지를 많이 주라고 있습니다. 중이가 되는 책도 빨리 만들겠습니다. (기자)

▲어떠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작품을 낼 일이 없습니니다. 그러나 저급부리는 값이 보내졌으니, 잘 저도의 주십시오. "어머니"와 "어린이"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조계로 4년 정 태용)

▲"어린이"가 맞습니니다. (기자)



★지난번 현상 모음에 당선된 작문과 풍요는 약속 때로 이런 오에 피아 싶었다. 심사원 여러 선생님들이 제 주신 "참고 나서"는 소학생 여러 본분이 앞으로 작문이나 풍요를 공부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올 줄인 선생님의 백두산 이야기, 본 제안 선생님의 바야 이야기, 결 열수 선생님의 심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시원하고 재치가 있어, 읽고 나면 여러 본도 꾸준함으로 읽은 바마로 가서 할 일을 보려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 책을 한권도 읽으려니와 이승형 선생님이 피스름에 빛아 돌아 가셨다는 슬픈 소식이 올랐나. 이 선생님은 여러 본도 아시마실 이 한 평생을 조선 제국을 위해 싸워 오신 분이여, 또 조선의 젊은이를 지국의 사랑하신 분이여, "소학생" 6 월지에 제 주신 "세계가가 피어낸"이 아야 조선 어린이들에게 주신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하마진 조선이 마로 사랑하는 이 때 그러한 본을 한 분이 마로 읽는다는 것은 조선의 정의를 위하여 싸진 불행한 일이 아 니다. (심)

1947年 8月 1日 發行
소학생 · 값 40 원
8 월지 · 제 49 호
 朝鮮兒童文化協會 發行
 印刷人 尹石重
 總發賣 乙酉文化社
 小賣店 ★ 文章閣 ★ 龍路 2街



차(車)의 내력

①② 옛날에는 바퀴를 만들 줄 몰라서 지금 열쇠 같은 것으로 돌전을 실어 날랐다. ③④ 차차 고개를 넘어 가기 위하여 양쪽에 바퀴를 달았다. ⑤는 로마에



서 귀족이나 왕이 타던 차. ⑥차본이 제일 처음으로 실린데 본래 기차(蒸氣車). ⑦볼턴의 규트바

는 사람이 발명한 간단한 삼륜 증기차 ⑧스미본슨이 갖은 새롭 게가며 만든 여객차(旅客車) ⑨ 16세기 전후에 독일에 있던 차 동차의 시초. ⑩1801년에 도메워 셔프가 발명한 것으로 지금 자동차는 그후 조금씩 발달된 것이다.

10월 16일 ⇨ 10월 29일

★ 우리 과학 전람회 ★

★여러 분의 좋은 작품을 기다린다★

과학! 우리는 과학을 배우고, 과학을 알고, 과학을 세워야 한다. 과학을 알고 과학이 발달된 나라만이 오직 잘 살 수 있고 남과 더불어 잘 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학 동우회에서는 때마다 과학 전람회를 열기도 하고, 을부회는 우리 조선 아동 문화 협회와 공동 주최로 더 한층 규모 큰 전람회를 열기도 되었는데, 초학생 여러 분들은 아예에 지인 규정을 잘 익혀 많은 작품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

작품 모집 규정

1. 출품할 사람=국민학교, 중등학교에 다니는 정도는 남자와 여자도 상관 없이 낼 수 있음.
2. 출품할 종류=과학에 관한 연구 보고서, 또는 작품.
(㉠) 동물, 식물, 광물, 물의 표본.
(㉡) 관찰, 연구의 보고서.
(㉢) 설계 창작품(設計 創案品), 모형, 발명품.
(㉣) 사진, 과학 그림
(㉤) 향토 보고, 조사서 (鄉土 報告 調査書).
3. 출품 중지 기일=을 9월 그달까지
과 학년 별로 출품할 것의 이름과 가짓수를 각 학교 교장이 통지하실 것.
4. 출품할 날짜=을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 출품할 곳=서울 중포 화선 백화점.
6. 전람회 여는 동안=을 10월 16일

부터 29일까지.

7. 여는 곳=서울 중포 화선 백화점.
8. 작품 제출 분=과학계의 권위자 여러 선생님들.
9. 상품=1 등 2 사람, 2 등 4 사람, 3 등 10 사람, 그 밖에 팔린 사람. 상장과 상품을 함.
출품한 사람은 하나도 빼 놓지 않고 "출품 기념장"을 함.
그중 잘 된 작품을 출품한 학교에는 "문교부장 상"이 있고, 이 밖에 "결기보 지사 상"과 "서울 서당 상" "조선 아동 문화 협회 이사장 상" 등이 있음. 출품을 많이 한 학교는 특별히 표창함.
그리고 특별 출품으로, 전선 대학생, 일한 연구가 교육가들의 작품과 연구 문헌도 환영함.
연락할 곳=출품 관계 서울 중포 화선 백화점 서부과. (그 밖의 것) 서울 경복중학교.

—주 회—

조선 과학 교육 동우회 ★ 조선 아동 문화 협회

—주 원—

문교부 • 경기도 학무국 • 서울시 학무국 • 서울시 교육회 • 경향 신문사